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8호 HYUNBULNEWS.COM 2026년 5월 13일(음력 3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6·3지방선거 '불교 정책 제안'

전통사찰 규제, 지자체 의지 '관건'
문화유산·사찰림 보존, 지역 자산
반복되는 종교편향…공정성 확보

여수령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불교계가 제시해 온 정책 과제들도 지자체장 후보들이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전승, 사찰림 보호, 종교편향 예방 등은 종교 정책을 넘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전통사찰 규제 해소와 지목 현실화

무엇보다 전통사찰을 둘러싼 행정 규제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현재 많은 사찰이 실제 경내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 등으로 묶여 있어, 노후 전각을 개보수할 때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지자체의 소극적인 해석과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다. 최근 남양주시가 협의체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지목 현실화와 건축물 합법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후보들은 △전통사찰 전담 협의기구 설치 △지목 현실화 및 건축물 양성화 절차 표준화 △통합 심의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보전금 제도 현실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공공 서비스 부담은 오롯이 사찰 몫으로 남겨졌다. 5월 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현안 논의 자리에서 통도사 측은 "연간 방문객이 300만명에 육박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주차장과 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 교통 체증 유발 등을 고려해 보전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방문객 규모를 반영한 보전금 산정 체계 개편 △사찰 인근 공공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화유산 보존 예산 확충

불교 문화유산 보존 역시 지방행정의 핵심 책무다. 최근 문화유산 보수 예산 축소로 인해 국보·보물뿐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도사 측은 "유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이 제대로 된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도 4월 29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에 문화유산의 안정적 보존 전승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유산은 특정 종교의 자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공 자산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비 매칭을 통한 보수정비 예산 증액 △비지정 문화유산 지원 조례 제정 등 보다 촘촘한 행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맞춤형 소방 · 방재 대책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병해충으로부터 사찰과 사찰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또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5만 헥타르에 달하고, 국립공원 내 사찰지 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7.4%를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사찰 방재 시스템 고도화 △병해충 방제 및 산림 관리 예산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6면에 계속



조계종은 5월 6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로봇 수계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식 직후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 '가비'를 선두로 탑돌이가 진행되는 모습.

오계 받고 '가비 스님' 된 로봇

조계종, 첫 로봇 수계법회…휴머노이드 4대 운용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금은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계를 받고 스님이 됐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6일 서울 종로 조계사 앞마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로봇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오계를 받은 로봇은 1대로 인간의 형상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날 로봇은 승복과 가사를 수한 모습으로 합장하고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했으며 연비와 수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법명은 '가비'가 내려졌다. 휴머노이드 스님 로봇은 가비 이외에도 '석자', '모희', '니사'의 법명을 받게 되는 총 4대가 운용된다. 이들 로봇은 오는 5월 16일 저녁 종로 연등행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전계대화상으로 증참한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법어를 통해 "유정 무정에 불성이 있다면 로봇에도 불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연등회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로봇 스님이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이들 로봇 스님들이 진실한 불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로봇 함께하는 연등행렬로 AI시대 선도"

진우 스님, 간담회서…혜안 스님 등 행렬 동참 '주목'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5월을 '마음 평안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수행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조계종이 올해 연등행렬을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함께하며 AI시대와 호흡하는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마음 평안의 달' 기자간담회를 열어 봉축 일정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현대인들의 마음은 매우 지쳐 있다"며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부족하며, 관계는 넓어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음 평안의 달'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봉축 기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불자들에게는 신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월 16~17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연등회가 서울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연등회에서는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대동한마당,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계천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사(우정공원), 봉은사 등에서는 전통등 전시도 열려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5월 16일 오후 7시 흥인지문에서 종각과 조계사로 이어지는 연등행렬에는 수만 개의 행렬등과 200여 점의 장엄등이 서울 도심을 밝힌다. 올해는 AI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휴머노이드 로봇 4대와 자율주행 로봇 '뉴비' '혜안 스님' 등이 봉행위원단과 함께 행렬에 참여해 주목된다. 또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며 북한 문헌등을 재현했으며, 북향민(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직접 문헌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한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고통 자체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면서도 "불교는 AI와 첨단기술을 참다운 인간과 불자를 만들어가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를 전통에만 머무는 고리타분한 종교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사실 불교만큼 첨단적인 사유와 깊이를 지닌 가르침도 드물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첨단적인 방식으로 불교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행렬 이후 종로 공평사거리 특설무대에서는 연희단 공연과 EDM 무대가 진행된다. 연등행렬을 비롯한 주요 행사는 연등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마음 평안의 달'은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을 끝으로 회향한다. 올해 봉축법요식은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화합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2면에 계속

김내영 기자

재적사찰 연등달기 캠페인

봉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축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망의 연등을 밝힙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연등 하나를 밝히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불이자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서원과 기도를 담아 밝힌 연등공양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마음에는 평안이
세상에는 화합의 기운이 두루 퍼지기를 발원합니다.

“불교 호감, 불자수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

1면에서 이어짐

박람회 등에 MZ 참여 대폭 증가
선명상, 국민 평안 운동 추진 계획
“신심 키워 의미있는 변화 이끌 것”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마음 평안의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페인의 성과와 봉축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의 성과도 공유됐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4일간 약 25만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5만명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경신했다. 관람객 가운데 MZ세대 비율은 81.7%, 무종교인은 약 40%로 집계됐다. 래퍼 우원재와 DJ 소다가 참여한 반야심경 공파티는 SNS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는 이틀간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중 20~30대 비율은 55.9%를 차지했다.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총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마음처방전’ 프로그램은 대기줄이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선명상의 보급 방향과 의미에 대해 진우 스님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조계종이 명상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전체 명상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간화선은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인 만큼,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방편으로 선명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선명상은 포교의 일환으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국민적 평안 운동이 될 수 있다”며 “5초 멈춤, 5분 명상처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이를 더욱 체계화해 학교와 기업, 각 기관 등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7명의 대선사가 차례로 법상에 올라 ‘간화선의 정수’를 설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담선대법회’에는 6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선의 지혜를 배우고 마음의 방향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는 동시접속 가능 인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접수 시작과 동시에 예약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일시 마비될 정도의 관심을 모았다.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선에 들고 구름에 눕다’도 선운사 금동지장보살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주목받으며 기존 특별전 대비 3배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청년 무료공양 프로그램 ‘청년밥심’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청년들의 식비 부담이 커진 현실과 맞물리며 올해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사찰이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조계종은 향후 청년밥심 프로그램을 지역 사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진 흐름이 문화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신행과 포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진우 스님은 “힙한 불교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인식 변화는 이뤄냈지만, 실제 이들을 불자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국 본말사를 중심으로 법회와 기도, 수행 등을 통해 신심을 키워내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마음 치유하는 선명상 공간”

진우 스님 국립공원공단서 법문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명상’ 주제
황룡사 9층 목탑 봉축등에 점등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립공원 보존과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힐링 법문’을 설했다. 스님은 “국립공원은 감정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치유의 공간”이라며 선명상을 통한 감정 조절과 내면의 안정을 당부했다.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

진우 스님은 5월 6일 원주 국립공원공단 1층 대회의실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는 국립공원공단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단의 전국 관리사무소 직원 2000여 명도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직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조언을 건넸다. 스님은 “젊은 직원들 가운데 공허함과 적막함, 외로움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멘탈을 어떻게 잡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괴로움의 근원이 지나치게 행복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에 있음을 짚으며 감정 덩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는 ‘중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선명상’을 제시했다. 5초 멈춤, 5분 선명상, 방하착 등을 꾸준히 체득하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서서히 내려놓을 수 있고, 능력과 능률, 즉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각자의 업무에 긍지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연간 4500만명이 국립공원을 찾는다”며 “국립공원을 가꾸는 일은 곧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남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며 “조금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응원했다.

강연에 이어 공단 로비에서는 신라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제작한 봉축등 점등식이 진행됐다. 봉축등은 향후 한 달간 공단 로비를 밝힐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개헌 논의 ‘본격화’

기관장·종무원장 연석회의
원장 연임제 등 의견 청취
6월 10일 승려대회 보고도



태고종은 5월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지난해 불발된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

태고종은 5월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도발안제를 통해 접수된 종헌·종법 제개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접수된 의견은 현재 단임으로 운용되는 총무원장 임기를 연임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개헌안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된 종헌은 즉시 준용되도록 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채택한 것은 2011년. 종단에 수십억원의 부채를 안겼다는 혐의로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멸빈 징계를 받자 당시 중앙종회는 제106회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헌했다. 총무원장의 장기 집권과 전횡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4년 단임제는 총무원장의 권력을 분산하며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적인 어젠다가 수반돼야 하는 종책과 종단 사업들의 부재다. 4년이라는 임기에 이루기 힘들고, 후임 원장의 종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임제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개헌이 화합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오는 6월 10일 오후 1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리는 승려연수교육 및 승려대회 계획도 공유됐다. 승려연수교육은 ‘한국불교 전통법맥 및 전통계승을 통한 태고종 위상 정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승려대회는 전 종도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통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보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에서 도출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종헌·종법 개정안을 면밀히 보완하고, 이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농협중앙회, 조계종에 자비나눔기금 기탁

진우 스님에 3000만원 전달
농협, “공익 활동에 힘써와”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농협중앙회는 5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매년 성금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농협은 늘 종단에 큰 의지처가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은 다른 기업보다 공익적 활동에 관심을 두고 힘써왔다”며 “지난해 경북·경남의 산불·호우 피해 복구에 371억을 지원했고, 현장 재해 복구 인원으로 1만 6000여 명 투입, 또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는 260만명의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민과 농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한 손길을 건네는 농협의 공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만 수계 시대 개막…동국 미래 100년 향해 전진”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식
김민석 총리 등 700명 동참해
120주년 맞아 새 엠블럼 선포
‘석전 박한영 전집’ 전달식도
“동국 글로벌 스탠더드 나아가
세계 위한 불교대학 가치 실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5월 7일 건학 1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는 지난 120년간 35만 동문을 배출하며, 민족의 자주독립과 조국의 산업화·민주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동국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해 나아가 ‘세계 속의 민족대학’, ‘세계를 위한 불교대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는 5월 7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건학 1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12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정관계 인사와 강석우·소유진·김인권·장미희·홍진경 등 동문 문화예술인, 고액기부자 등 700여 명이 동참했다.

윤재웅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종립대학으로서 청년 불자 육성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윤 총장은 “120년 역사상 최초로, 학생 1만명 수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동국에서 일어나는 전법의 불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종립 동국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숙원사업이던 로터스관 신축공사가 시작됐다”면서 “2028년 완공되면 동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로터스관 대작불사가 원만성취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사부대중에게 요청했다.

선지식들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도 소개했다. “건학 120주년을 맞아 큰 스승들을 자랑스럽게 모시는 일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힌 윤 총장은 “석전 박한영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 김법린과 백성욱 두 총장 선양사업을 필두로 ‘동국정신에 대한 자긍심의 공유와 확산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동국대는 ‘석전 박한영 전집’ 전달식 행사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돈관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요 불교 중흥이 동국 발전이라는 발원은 동국인 모두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풀어가야 할 화두”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1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동국의 힘은 사람”임을 분명히 한 돈관 스님은 “교수와 직원의 헌신, 동문들의 성원, 학생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동국이 있었다”며 “새로운 동국의 100년을 향해 모든 구성원이 더 큰 지혜와 자비,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AI시대에 발맞춰 ‘창의적 혁신’에 나서줄 것을 동국대에 주문했다. 스님은 “과학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불교적 인문 정신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와 첨단 기술을 불교적 가치와 융합하는 ‘창의적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종단 역시 역량을 결집해 동국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치사를 마친 진우 스님은 돈관 스님과 윤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민석 총리는 “동국대의 AI 비전인 동악 플랜은 초격차 AI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며 “호국불교의 전통,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라는 동국대의 저력은 다가올 100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동국대를 졸업했음을 밝힌 주경 스님은 “120년 전 우리 선사들께서 교육 구국의 기치를 드높였던 이유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며 “우리가 함께 모은 이 원력이 동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웃종단을 대표해 관음종 종정 홍파 대종사는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세우는 불사도 중요하지만 동국대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인재 불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기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동국대학교가 걸어온 명예로운 발자취는 단순한 학문의 전당을 넘어 불교적 가르침, 섭심과 자비를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해 온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상찬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모교와 동반 성장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후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엠블럼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새 엠블럼은 동국대의 상징인 코끼리를 형상화했다.

“불조 혜명 바르게 잇겠습니다”…종덕·현덕 법계 품서

5월 7일, 조계사 대웅전서 품서식
비구 64명 · 비구니 45명 총 109명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5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 · 현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비구 64명, 비구니 45명에 종덕 · 현덕 법계를 상징하는 법계증과 19조 가사를 수여했다.

승랍 25년 이상,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109명의 스님이 종덕·현덕 법계를 품수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스님)은 5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현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비구 64명, 비구니 45명에 종덕·현덕 법계를 상징하는 법계증과 19조 가사를 수여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할 때 세웠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법등을 전승함에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래로는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대자비심을 발해 고통받고 상처입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정법으로 교화하고 그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대중을 감화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후학에게 길을 보여주는 참된 스승이 돼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한국불교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욱 깊은 성찰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원로와 중진스님들의 지혜와 원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님들이 종단 안정과 화합, 수행가풍의 진작, 전법교화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큰 힘이 되어달라”고 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과 법계위원 스님들은 1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인 비구 혜공·비구니 혜심 스님에게 법계증을, 도심 스님과 덕유 스님에게 가사를 대표로 수여했다.

정대 후 새 가사를 착의한 스님들은 중덕 법계 품수자인 자오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조 혜명을 바르게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써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며 인천의 사표로서의 위의를 항상 갖추고 중생구제 원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서원했다.

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비구 스님 85명, 비구니 스님 46명 등 총 131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덕·정덕 법계품서식도 진행했다.

한편 품서식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불기 2570(2026)년 상반기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1·3·4급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6명의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상반기 조계종 1급 승가고시에서 혜공 스님과 혜심 스님이 수석을 차지했다. 임은호 기자 · 박지운 수습기자

“보문사 용왕대재, 국가 행사로 승화되길”

진우 스님, 5월 3일 초재 법문
6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법석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강화 보문사가 봉행하는 수륙용왕대재가 국가적 행사로 승화되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강화 보문사(주지 원경 스님)가 5월 3일 극락보전 앞에서 봉행한 수륙용왕대재 초재법회에 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과 선명상을 함께한 후 법석에 오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보문사는 이미 최고의 기도도량이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도량, 나아가 국가적 수륙용왕대재 도량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용왕대재를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는 것은 외부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를 자각하는 것”이라며 “용왕대재를 지내는 것은 외부 신에게 비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길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참선과 염불, 명상,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고 업의 반복을 끊는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4월 24일 입재한 보문사 용왕대재는 △5재 5월 31일 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6재 6월 7일 광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 후 6월 11일 회향한다.

강화 보문사=여수령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

‘여래 대자비 회상’ 감동 재현하다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5월 3일 봉축점등식
여래 설법 재현 ‘여래공심불등’
설법 동영상 담는 불자 등 눈길
대행 선사 동상 · 본원도 담겨
10년 만 ‘용등’ 리뉴얼 ‘경량화’


한마음선원 도량을 밝힌 ‘여래공심불등’의 모습. 한마음선원은 5월 3일 봉축점등식을 열고 올해 봉축장엄등 ‘여래공심불등’을 공개했다.

매년 연등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이 공개됐다. 올해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은 부처님의 설법 회상을 형상화한 ‘여래공심불등(燈)’으로 여래공심불의 대자비 설법 회상에 울려 퍼지는 법열(法悅)을 담아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5월 3일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불기2570년 봉축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은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등 대중 스님과 최대호 전 안양시장 내외,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점등식은 한마음선원에서 자체 제작한 장엄등과 행렬등, 선원 연희단의 공연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들 장엄등과 행렬등은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의 점등으로 불을 밝히며, 도량과 세상을 비췄다.

올해 한마음선원은 봉축장엄등으로 ‘여래공심불등’을 선보였다. ‘여래공심불등’은 부처님이 만물만생에게 한마음 도리를 깨닫게 하는 대자비의 법을 설하는 회상을 형상화했다. 도상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승가와 재가, 동물과 물고기, 식물 등이 설법을 듣는 모습을 그려냈으며, 뒤로는 참진리의 법음을 노래하는 비천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마음의 문이 구현됐다.

또한 ‘여래공심불등’은 현대적 감로도의 형식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재가 대중에는 다양한 인종이 표현됐으며, 스마트폰으로 부처님의 생생한 설법을 동영상으로 담으려는 신도를 구현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남산타워부터 다양한 인간 군상,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들도 도상에 채색화 형식으로 재현했고,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대행 선사 동상도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점등식에서 한마음선원은 장엄등에 대해 소개하며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돼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는 공심(空心)의 뿌리를 부처님은 오늘도 만물만생으로 나투시며 전하신다”며 “그 가르침이 더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여래공심불과 2600년 전에 영산회상과 다름없이 한마음의 위치를 전하는 부처님의 현대 회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여래공심불등에 한마음으로 불을 밝히며 밝디 밝은 지혜의 빛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전체가 자비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이 같은 대형 장엄등의 제작을 위해 한마음선원 청년회원 120여 명은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직후인 6월부터 기획 및 시안작업에 들어갔다. 12월에는 제작 화합재를 봉행하고, 5개월여 동안 생업과 병행하며 제작 불사를 진행해 완성했다. 사실상 1년 간 장엄등 제작 불사를 수행으로 삼아 정진한 것이다.

채색을 담당한 추주희 장엄등 채색팀장(34)은 “우리는 모두 불성(佛性)을 지닌 존재지만 이를 알지 못해 무명과 번뇌에 빠져 살아간다”면서 “장엄등 제작불사에는 공심(空心)으로 나를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1년간의 불사는 나라는 상(想)을 벗어나는 수행이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각 법회별 행렬등도 소개됐다. 점등식에서는 승단 행렬등 ‘금강저등(燈)’을 비롯해 △신도회 ‘한마음바다등’ △선법합창단 ‘한마음광명등’ △학생회 ‘보배일산등’ △어린이회 ‘둥근한마음의꽃향기등’을 각각 선보였다.


10년 만에 새롭게 조성된 ‘용등’을 이용한 청년회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법회들은 행렬등과 함께 연희 군무 공연을 펼쳤다. 선법합창단은 ‘하나로 흐르는 빛’, 어린이회는 ‘둥근 마음의 꽃향기’, 학생회는 ‘마음의 빛’을 주제로 한 군무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특히 청년회는 공연을 통해 올해 10년 만에 ‘용등’을 새로 제작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리뉴얼된 ‘용등’은 이전보다 경량화를 이뤘고, 디자인도 슬림해진 것이 특징이다. 정원이 기존 26명에서 18명으로 줄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역동적 공연을 펼칠 수 있다는 게 하유성 용등 팀장(40)의 설명이다.

하 용등 팀장은 “골조 재질을 바꾸고 정원을 줄여 경량화를 이뤘다”면서 “이를 통해 역동적인 움직임 구현이 가능하다. 오늘 공연과 연등회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청년회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2인 1조 ‘사자춤등’과 리뉴얼된 ‘용등’을 중심으로 청년회 풍물패,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현대무용, 뮤지컬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점등식 참가 대중의 흥을 한껏 돋웠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회를 비롯한 선원 사부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올해 봉축장엄등 ‘여래공심불등’은 자세히 보면 더욱 디테일하고 아름답다”면서 “점등식에 참석한 사부대중께서 장엄등과 모든 행렬등에 함께 불밝혀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성껏 조성한 선원의 장엄등과 행렬등이 연등회 제등행렬에서 다른 사찰들의 연등과 잘 어우러져 한마음으로 빛을 내 그 의미가 세상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마음선원의 장엄등과 연희 군무를 보기 위해 1년을 기다린다”고 상찬한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은 “오늘 불 밝힌 장엄등 ‘여래공심불등’부터 어린이회의 ‘둥근한마음의꽃향기등’까지 너무 아름다웠다.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공연도 제게 향기로 다가왔다”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향기로운 마음을 갖고 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미타요양병원, 승려복지 기반 자리매김

5월 6일, 개원 3주년 기념법회
지강 스님, 발전기금 1억원 약정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5월 6일 원내 6층 법당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승려복지회

아미타불교요양병원(대표이사 호산 스님)이 개원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의지를 다졌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5월 6일 원내 6층 법당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의료법인 대표이사 호산 스님을 비롯해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전 총무부장 성화 스님, 안성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보라 전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스님을 공경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기치 아래, 조계종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자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개원한 요양병원이다. 감염병실과 치매병실 등을 갖추고 스님들과 재가 환자들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운영하며 심신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입원 스님들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행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려복지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 2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요양병원에는 현재 스님 22명이 입원 중이다.

이날 법회에서 대표이사 호산 스님은 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더 쾌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스님들이 수행의 연장선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승려복지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의료법인 이사인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개원 3주년을 기념해 병원 발전을 위한 1억원 후원을 약정하며 의미를 더했다.

임은호 기자

“어린이날, 조계사 부처님과 함께”

키캡 · 볼펜 · 단주 꾸미기 ‘인기’
놀이 · 명상 즐기는 사찰 놀이터


어린이날 조계사 마당에서 아이들이 키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가 주인공, 모두 모여라!’를 주제로 불교체험마당을 개최했다.

오전 11시, 조계사 마당은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로 북적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체험권’을 받은 아이들은 주차장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나섰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키캡 만들기, 볼펜 꾸미기 부스 앞에 가장 먼저 대기 줄이 생겼다. 자개 보석함·도어벨 풍경·단주 만들기 코너도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의 손길로 분주했다.

바로 옆 부스에서는 맑은 싱잉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명상 전문가 은산 스님의 지도에 따라 싱잉볼의 울림을 손과 귀로 느꼈다. 주위의 소란스러움에도 소리에 집중하며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배웠다.

천진불 옆 마당에는 투호 놀이와 널뛰기, 제기차기, 버나 돌리기 등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엄마 아빠의 시범을 보며 제기차기에 도전하는 아이들 옆으로는 비눗방울이 몽실몽실 피어났다. 조계사 포교국장 정오 스님이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들어 내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체험을 마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체험 개수에 따라 소떡소떡, 회오리감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간식이 제공된 것. 게임판 돌리기에서는 인형과 로봇, 퍼즐 등의 장난감이 선물로 주어졌다.

키캡 만들기에 참가한 초등학생 김하윤(12) 양은 “키캡을 직접 꾸밀 수 있어서 좋았다. 책가방에 매달고 다니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영어로 만나는 금강경’ 법회 회향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3월 18일~4월 29일 진행


‘영어로 만나는 금강경’ 법회 회향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3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진행된 ‘영어로 만나는 금강경’ 법회를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법회는 청고 스님을 강사로,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 한영(韓英) 합본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을 교재로 진행됐다.

법회 참가자들은 금강경 구절을 영어로 함께 읽고 뜻을 나누며 경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천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양한 나이와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금강경의 의미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질문을 공유하며 공부의 깊이를 더했다.

법회에 참여한 베일리 헨더슨 씨는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질문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간도 참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연 씨도 “법회가 주는 안정감 덕분에 기간 내내 마음이 편안했고, 자신을 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청고 스님은 “법회 시간은 30분 동안 영어로 〈뜻으로 푼 금강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30분은 함께 참여한 분들과 토론을 통해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며 “자신의 이해와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함께 공유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회를 계기로 계속 영어 법회를 이어가는 방향도 생각하게 됐다. 논의를 거쳐 진행해 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대학생 200명 “참된 불자” 서원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 대불련
5월 2일, 봉은사서 합동수계법회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 대불련 합동수계법회에서 참가자들이 수계를 받고 있다.

서울 지역 대학생 200여 불자들이 수계법회를 통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능원 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는 5월 2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전계사로 한 이날 법회에는 홍익대, 연세대, 서울대, 경희대, 가천대, 경기대 등 서울·경기·인천지역 35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법단장 능원 스님은 이날 수계를 통해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게 됨을 축하하며 “한국불교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불자 한 사람으로서, 불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민지 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연비의 흔적은 부처님 제자로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비롭게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도반과 큰 발걸음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계사 원명 스님은 “오늘 받는 계는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근본이 된다”며 “계를 잘 지켜 선한 인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자들은 정한 계를 지켜나갈 것을 서원하고 장궤합장을 한 채 참회진언을 외우며 가르침을 새겼다.

임은호 기자

김포 연운사, 동국대에 장학금

4월 30일, 지역불자에 1000만원
세 차례 후원 “지역과 함께 성장”



김포 연운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김포 연운사(주지 진무 스님)가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연운사는 2023년 제48회, 2025년 제104회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4월 30일 서울캠퍼스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포 연운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운사는 동국대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장학금은 김포 출신(거주자 및 고교 졸업생) 재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수여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대한 연운사의 관심이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장학생들도 연운사의 소중한 마음을 되새기며 연운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진무 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연운사 구성원 모두에게 보람”이라며 “이번 장학생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수습기자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원력 결집

조계종, 5월 2일 기원법회 봉행
천일기도 3주년 맞아 성과 공유
1000여 명 동참 ‘불교 중흥’ 발원
진우 스님 “세계 불교 성지 장엄”
허민 청장 “보존 방안 다각 강구”
석불두 등 남산 성보 5곳 참배도

경주 남산=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은 5월 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상징적 불사로 추진되고 있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가 천일기도 3주년을 맞아 흩어졌던 신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미래 천년을 향한 서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로 거듭났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을 세우는 과업을 넘어 열암곡 일대 성역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2023년 4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불사의 원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종단 핵심 과제로 추진

법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헌향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의 헌등과 헌화,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의 축원으로 이어지며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간절한 서원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의 경과보고를 통해 그간의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 사업 과정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2007년 5월 지진으로 인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19년 백만원력 결집 불사를 거쳐, 2022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을 계기로 입불 불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를 비롯해 선명상 대중화, 미래세대 인재양성, 지역불교 활성화를 아우르는 ‘천년을 세우다’ 사업을 종단 핵심 과제로 선언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였다.

이에 따라 총무원 내 전담기구인 ‘미래본부’가 신설됐고, 2023년 4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천일기도는 매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동참하는 다라니 기도로 이어지며 전국적 신행 확산을 이끌었다. 그 결과 초기 연인원 300여 명에 불과했던 참배 인원은 현재 2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다.

미래본부는 학술대회, 문학공모전, 남산 성보지도 제작 등 다양한 문화·학술 사업을 통해 마애부처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업 추진 2주년을 맞아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현장에서 108배 기도를 봉행하고 남산 순례길 개발에 착수하는 등 수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성지 모델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진우 스님 “시대정신 바로 세우는 일”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를 통해 경주 남산을 정토 구현의 상징으로 가꿔 후손들에게 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불사는 석불의 형상을 일으켜 세우는 토목의 역사가 아니라 분별과 집착으로 무너진 불교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부처님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곧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운 융창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 남산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비유하며 일대 성역화 불사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진우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을 세우는 과업을 넘어 경주 남산을 전 인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장엄해 나가야 한다”며 “조계종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열암곡 일대 성역화를 추진해 마애부처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살펴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허민 문화유산청장.

께서 전 세계인을 자비로운 미소로 맞이하는 평화의 안식처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계의 원력에 국가유산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더해 남산의 문화유산이 제 가치를 되찾고, 후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 힘쓴 불국사 총무 정수 스님, 열암곡 기도법사 선우 스님과 귀종 스님, 최장미 국가유산청 학예연구관,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김미향 국립공원 경주사무소 문화자원과장, 서찬 동국대 경주병원 사무국장에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부대중 정성 모일 때 완성”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은 “열암곡에 엎드려 계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자 민족 정신 가치를 회복하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핵심 사명”이라며 “부처님께서 온전히 제자리를 찾으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신심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갈등과 분열 혼란이 깊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한 만큼, 국회에서도 이런 뜻을 깊이 새겨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도 “이 시대 불자와 국민이 마음을 합쳐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움으로써 나라와 우리 불교와 불자 모두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사부대중은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불교 중흥과 국운융창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법회를 마친 뒤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주차장에서 열암곡 현장으로 이동해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친견했다. 마애부처님께 꽃을 공양한 진우 스님은 “지금 K-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불교 문화가 뒷받침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마애부처님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의 도리도 아닐 뿐 아니라 불제자의 자세도 아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스님은 “마애부처님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확인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참배 공간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불 여부, 긴밀히 협의해 방안 연구”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마애부처님 입불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추가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의 마애부처님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바로 세울 것인지, 또는 현장 보존하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 조계종과 긴밀히 협의해 여러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동국대 WISE캠퍼스 스님들의 인솔 아래 지역 포교사와 시민들은 불곡마애여래좌상, 입곡 석불두,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윤을곡 마애삼존불 등 남산 일대 주요 성보 5곳을 차례로 참배했다.

해외불교는 지금

인도, 봉축 분위기로 들떠 오르다

라다크서 진신사리 공개
달라이라마 봉축 메시지 발표

올해 ‘국제 베삭 데이’였던 5월 1일을 맞아 인도 라다크 지역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공개되며 환희로운 봉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라다크 인도 연방직할지 행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라다크의 봉축분위기를 전했다.

4월 29일 오전, 인도 공군의 특별항공편으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뉴델리에서 라다크의 주도인 레로 이운됐다. 이 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 후 건립된 근본 8탑 중 하나인 피프라와 불탑에서 출토된 것이다. 사리를 마중하기 위해 비나이 쿠마르 삭세나 라다크 부지사를 대표로 라다크 불교협회(LBA), 라다크 사암 협회(LGA)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삭세나 부지사는 라다크 주민들을 대표해 전통 예물인 카닥(비단 스카프)을 올리고 예를 표했다. 부지사는 “해외가 아닌 인도 국내에서 이 사리가 원래의 보관 장소를 벗어나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SNS를 통해 “이 성스러운 사리는 부처님의 영원한 가르침의 상징이다. 이 사리가 레에서 공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라다크 경찰 의장대 사열과 스님들의 특별예불이 봉행된 후, 사리는 시와첼 공원으로 이운됐다. 이운되는 동안 라다크 전역에서 온 불자들이 공항에서 공원까지 꽃과 향을 들고 사리를 마중했으며 길가에서 연주하는 등 공양을 올렸다.

5월 1일 오전 시와첼 공원에서 봉행된 봉축 행사에 참여한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피프라와 사리는 지난 1950년 인도의 국회의원이자 라다크의 존경받는 고승이었던 바쿨라 린뽀체의 요청으로 잠시 레에서 공개된 적 있었으나 당시엔 열악한 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75년 만인 오늘, 라다크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사리를 친견하는 가피를 받는다”며 역사적 의의를 설명했다.

진신사리는 10일까지 시와첼 공원에서 친견이 이루어지며 이후 잔스카르와 레의 다르마 센터를 거쳐 5월 15일 델리 박물관으로 다시 이운될 예정이다.


라다크에서 공개 중인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
사진 출처=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5월 1일, 봉축 메시지를 통해 “2500년 전 부처님이 세상에 밝힌 등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연기법에 대한 깊은 통찰과 “남을 해치지 말고 모든 중생을 도우라”는 가르침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실천적인 지침이 됨을 역설했다. 이어 “스스로를 불제자라 생각하는 이들은 21세기형 불자가 되어야 한다”며 “가르침을 깊이 성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9월01일 출발~05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9월3일 출발~9월7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일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9월02일 출발~0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문화 주권 없는 지방 자치는 허구다

특별기고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박물관 소재 '반출 문화유산'
'제자리 반환' 공약 내놔야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기본 사회'와 '강한 지방 시대'의 완성은 행정·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지방 자치는 지역의 역사적 뿌리와 정신적 자산인 '문화유산'이 유래한 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수도권 집중의 상징이 되어버린 국립중앙박물관 소재 지역 유산들을 각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문화 주권 확립'을 핵심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중 상당수는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와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사찰터 등에서 강제로 뜯어내 경복궁과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부당·불법 반출해간 것들이다. 경남 창녕의 가야 고분군에서 나온 찬란한 장신구들, 경북 경주 금관총의 신라 보물들,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반출된 백제의 정수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국립박물관 등의 수장고와 전시실을 채우고 있다. 이는 일제가 식민 통치의 편의를 위해 자행한 '문화적 수탈'의 연장선이며, 광복 후 8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우리는 그 중앙집권적 유물 관리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3특 5극(3개 특별자치시·도와 5개 메가시티)'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초광역 단위의 자치 시대에 문화유산이 서울에만 묶여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2026년 현재, 국보 367건 중 162건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의 원인은 조선총독부의 적산(敵産)을 물려받은 국립박물관이 광복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유산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리를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김천 갈항사지 동 · 서삼층석탑(왼쪽)과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사진 출처=국가유산포털

대표적인 불교 유산으로는 김천 갈항사 동·서 삼층석탑, 원주 정토사지 흥법국사탑과 염거화상탑, 원공국사탑, 서산 보원사지의 철조여래좌상, 완주의 봉림사 석탑 등이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끼친 유산들이다.

이에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다. 유산은 그 땅의 역사, 기후, 사람들의 이야기와 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가치를 발휘한다. 중앙 박물관의 거대한 전시물 중 하나로 전락한 유물들을 이제는 각 지역의 '대표 유산'로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문화 주권은 지역 소멸을 막고 '기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지역의 대표 유산 한 점이 돌아오는 것은 '박물관 관람객 수 증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관련 문화콘텐츠 산업을 촉발하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화유산 반환은 가장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 전략이다.

셋째, '국가 귀속'이라는 미명하의 중앙 독점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보존 시설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역 반환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 지방 정부들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국가 소유'라는 폐쇄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유권은 국가에 두더라도 전시와 관리는 지역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일제강점기 반출 문화유산의 전면적인 고향 귀환'과 이를 뒷받침할 '문화 분권 특별법' 제정을 공약화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지역별 핵심 유물들의 반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한 이유이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해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선 '환지본처'가 답이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역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 고향의 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지방 시대'라는 약속은 현실이 될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문화권력을 과감히 내려놓고 지방 문화주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1면에서 이어짐

종교중립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영역의 종교편향 논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특정 종교 행사나 시설을 집중 지원하거나 공공 홍보물에 종교 상징을 노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행정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관광 홍보물과 대중교통 안내판 등에 성당, 예수상 등을 노출하고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장기간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또 전주시 공식 SNS에 다수의 기독교 관련 게시물이 게재돼 있고, 시장의 주요 공식 일정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행정 전반에서 종교 편향이 반복되자 불교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행정의 종교중립 의무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특정 종교에 치우친 정책과 홍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불교계 안팎에서는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 대상 종교편향 예방 교육 의무화 △공공 홍보물 종교중립 가이드라인 마련 △종교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점검 체계 구축 △종교편향 민원 신고 및 조정 시스템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의 종교편향 논란이 발생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 중립은 특정 종교를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존중하자는 공공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차기 지방정부는 종교편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과 시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통사찰 전기요금 감면 확대, 국공유지 내 사찰 토지 불하 등 중앙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념 대립이나 지역 개발 경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전통문화와 환경, 공동체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묻는 엄중한 심판대다. 각 후보와 정당은 불교 정책이 전통문화 보존과 사회 통합, 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는 정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여수령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통도사 찾은 민주당, 불교 현안 청취

5월 3일, 종정 성파 스님 예방
"한국 정신문화 알리는 전환점"
문화유산 · 사찰 규제 개선 논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양산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불교계가 직면한 핵심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 김영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정식·김태년·이재강·이훈기·윤건영·박홍배·박희승 의원 등은 5월 3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를 찾았다.

의원단은 먼저 정변전에서 성파 스님을 예방했다. 의원단은 오는 11월 중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리는 성파 스님의 초대전 및 국제학술세미나에 대해 "한국의 깊은 정신문화와 K-컬처의 진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은 5월 3일 통도사를 방문해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통도사 정변전에서 성파 스님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모습.

성파 스님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으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그 뿌리가 되는 전통 미술과 고원한 정신문화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국정에 진력함은 물론, 우리 고유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 외교에도 정치권이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주지 현덕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진각 스님, 총무국장 진응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해 행정적 규제와 재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안으로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실질적 확대가 논의됐다. 통도사는 "방문객이 폭증해 연간 280만~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 지원금은 과거 낮게 책정됐던 입장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객 급증으로 주차장 포화, 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 교통 체증이 심각한 만큼 보전금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사하촌(마을)과의 상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유산 보존 예산의 대폭 삭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님들은 "문화유산 보수 예산이 반토막 이상 삭감됐다"며 "지역 유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이 제대로 된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심각해진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 "사찰 주변과 명승지, 총림 보호 구역을 '예방 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총체적 관리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전통사찰의 전기료 감면 혜택 확대 △사찰 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규제 개선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의원단은 스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계의 의견을 깊이 소통한 만큼 오늘 의원님들의 방문이 불교 발전이라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축원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오늘 들려주신 현장의 구체적이고 귀한 말씀들을 정책적으로 잘 새겨듣고, 불교계와 정치권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도심 밝힌 '지혜의 등'

5월 1일 송상현광장서 점등식
제등행렬 · 소원등으로 축제 열기
정오 스님 "인류 평화 마중물"
한마음선원부산 미니 제등행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연합회가 5월 1일 송상현광장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연등문화제가 송상현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도심을 장엄한 불빛은 갈등을 넘어 평안과 화합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5월 1일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천지동근 만물일체(天地同根 萬物一體)' 사상을 언급하며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 세상은 세계일화,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다. 중생의 어리석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순간에 지혜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밝힌 이 연등 물결이 갈등과 반목으로 앓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온 인류에 평화의 기운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밝히는 등불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며 "탐진치 삼독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비춰 각자의 여래장에 불을 붙이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기와 욕망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자"고 당부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늘 개막을 계기로 부산 시민과 불자 여러분 모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빈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등이자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상징"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실천이 모일 때 부산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2600년 전 인류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산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점등 선언과 함께 송상현광장 일대에 설치된 수천 개의 전통등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장관을 연출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선 웅장한 대형 탑등을 비롯해 부처님과 코끼리, 용, 연꽃으로 꾸며진 다채로운 장엄등이 형형색색 불빛을 뿜어내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특히 점등식 직후에는 천태종 삼광사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이 동참한 미니 제등행렬이 이어져 축제에 환희심을 더했다. 사부대중은 광장 일대에 각자의 염원을 담은 소원등을 직접 달며 자신과 이웃을 향한 자비의 빛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부산연등회는 이날 점등식을 시작으로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전통등 전시와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5월 16일에는 연등회의 백미인 본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범어사, 제126회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

4월 29~30일, 5500여 명 수계
수불 스님 "보살계는 자비 발현"



금정총림 범어사가 4월 29~30일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봉행한 '제126회 보살계 수계산림'에서 전계대화상 수불 대종사가 수계자 대표들에게 계첩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이 여법히 회향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사부대중 5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6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은 전계대화상 율주 수불 대종사, 갈마아사리 화봉 스님, 교수아사리 원창 스님을 비롯해 정오·일광·법안·공마·목종·도경·담화림 스님이 존증아사리로 나서 3사 7증의 법석을 증명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도 참석해 지계의 삶을 서원하는 수계 제자들의 신심을 격려했다.

입재일인 29일에는 천수다라니와 노사나불 정근, 주지 스님 인사, 전계사 스님 심지법문, 갈마아사리 스님의 십중대계(十重大戒) 설법이 진행됐다. 회향일인 30일에는 교수아사리 스님의 48경계 설법에 이어 묵은 업장을 태워내는 연비 의식 및 계첩 수여가 진행됐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심지법문을 통해 보살계의 핵심이 형식적인 규율의 준수를 넘어 '자비행의 적극적인 실천'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보살계는 나를 얽매는 수동적인 규칙이 아니라, 세상과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심(利他心)의 발현"이라며 "이웃을 향해 한없는 나눔과 베풂을 실천함으로써 나와 남이 한날한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자타일시성불(自他一時成佛)'의 대도(大道)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보살계를 수지한 불자의 참된 도리"라고 당부했다.

범어사 금강계단은 1901년 만하 스님의 주도하에 중국 법원선사의 계맥을 이은 성월 스님이 개설했다. 이후 일봉-운봉-영명-동산 스님으로 이어져 왔고 동산 스님이 용성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칠불맥과 기존 계맥을 통합한 뒤 석암-고산-수불 스님으로 계맥이 전승돼 오늘날 한국불교 지계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덕원사, 성불관 낙성

5월 3일 낙성식 및 현판식 봉행
"수행 · 신행 도량 새 전기 마련"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5월 3일 산신각 현판식 및 성불관 낙성식을 봉행했다.

주지 덕원 스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산신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산신신앙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중생의 소망을 들어주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 도량을 찾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각 가정마다 길상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축사에서 덕원사가 대도량의 위의를 갖춘 만큼 "겸손과 포용의 수행정신이 도량 발전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사는 노후화된 전각을 보수하고 수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24년 7월 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착공, 지난해 1월 상량식을 거쳐 지난 1월 준공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전통 목조건축 양식의 산신각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됐다. 대지면적 533㎡, 연면적 576.84㎡ 규모로 1층 주차장, 2층 공용시설, 3층 산신각과 요사채가 배치됐다. 특히 옥상부에는 전통 맞배지붕 형식의 산신각을 올려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량의 면모를 갖췄다.

이날 덕원 스님은 불사에 공헌한 공로로 김수열, 황갑선, 김광복, 김강현, 유준환, 권성일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불교문화원, 장유 화상 추모재

5월 1일 대성동고분군서
가야불교 뿌리 되새겨



김해불교문화원(이사장 혜수 스님·김해불교연합회장)은 5월 1일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불기 2570년 장유 화상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로 이어지는 법맥과 인도불교 27대 반야다라존자를 거쳐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 대사에 이르는 정법의 전통을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몸은 곧 광명의 깃발이 되고, 그 가르침을 간직한 마음은 신통의 창고가 된다"며 "정법의 계승은 수행과 실천 속에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추모재가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광명의 깃발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은 축사에서 "장유 화상의 정신은 가야불교의 뿌리이자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추모재를 통해 선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역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해시는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 대중은 영산작법과 종사영반 등 추모의식을 통해 장유 화상의 가르침을 기리며 지역 불교 전통 계승과 수행 정진을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스티커 한 장으로 새에게 생명을"

울산불교환경연대, 생태 캠페인
"조류충돌 저감 장치 법제화 要"



도심 곳곳의 투명한 유리 건축물이 야생조류를 위협하는 '죽음의 벽'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기 위해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 스님)가 나섰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땡땡학교) 일대에서 '조류충돌 저감 및 생태감수성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창길 자연의벗 이사장과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조류충돌과 멸종위기종(1차시) △울산의 생물다양성과 위협요인(2차시) △마을 주변 탐조 활동(3차시) 등 이론과 생태 관찰을 체계적으로 이끌었다. 5월 2일 4차시에서는 거점센터 인근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직접 부착했다.〈사진〉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조류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교계의 동참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스님은 "조류충돌 저감은 곧 불교의 자비이자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 문제"라며 "건축 설계 단계부터 조류충돌 저감 장치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먼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캠페인에 뜻을 함께했다. 스님은 생명 존중의 의미에 공감하며 캠페인에 사용된 스티커 제작을 후원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한 주민은 "내 손으로 붙인 스티커가 진짜로 새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뭉클했다"며 "새장의 새를 날려 보내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곧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새는 국내에서만 하루 2만여 마리,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유리창 외부에 5cm 이하 간격의 점이나 선 패턴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불광사, 대웅전 탱화 불사 회향

조해종 불모 2년여간 조성
5월 1일 후불탱화 점안식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부산 불광사(주지 보원 스님)가 5월 1일 대웅전에서 '탱화불사 회향 점안식'을 봉행했다. 새롭게 조성된 탱화는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석정 스님의 제자로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연당 조해종 불모(연당불교미술원장)의 작품이다. 조해종 불모는 지난 2년 동안 불보살과 외호신장의 모습을 장엄하게 표현했다.

법회에는 불광사 창건주이자 증명법사인 인산 지준 대종사와 지학·오송·문수·무비·도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희용 부산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이날 주지 보원 스님은 불사에 공로를 세운 조해종 불모와 박희용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불광사 창건주 지준 스님은 법문을 통해 "1987년 8평 남짓한 조그만 법당으로 시작해 대웅전을 짓고 손수 단청하던 시절, 늘 제대로 된 후불탱화를 모시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며 "보원 스님이 주지를 맡아 도량을 가꾸고 훌륭한 탱화까지 원만하게 모시게 되어 창건주로서 마음이 참으로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유학생들 '팔모등 만들기' 도전!

5월 13일까지 800개 제작
직접 만든 등으로 제등행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5월 6일 교내 선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팔모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유학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건학이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학생들은 '팔모등'을 직접 제작하며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사 틀에 한지를 붙여 완성하는 과정은 약 20분가량으로, 동아리 학생들의 안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등의 상징성과 제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작 과정에서 등불은 내면을 밝히는 지혜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를 상징하며, 정성을 다해 등을 만드는 과정은 수행의 실천인 정진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전통 팔모등 만들기'는 5월 13일까지 가람당과 선센터 공양동 등에서 상시 운영되며, 불교동아리 단체 제작을 중심으로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총 800여 개의 팔모등이 제작될 예정이다.

완성된 팔모등은 5월 14일 열리는 '형산강연등문화축제' 제등행렬에 활용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등을 들고 행렬에 참여한다.

유학생 천 메이이(경영학 3년) 학생은 "연등을 만들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완하 총장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체험하고 소속감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만당 스님 오셨나”…불갑사 찾은 ‘만당새’

대웅전 앞 괘불대에
둥지 튼 노랑할미새
“생명 지키는 마음
또한 부처님 자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갑사 대웅전 앞 괘불대 구멍에 둥지를 튼 노랑할미새의 새끼가 입을 벌리고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다. 불갑사 대중은 이 특별한 인연을 ‘만당새’라 부르며 보호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영광 불갑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사부대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최근 대웅전 앞마당 괘불대 구멍에 둥지를 튼 노랑할미새 한 쌍과 새끼들을 보호하며, 참배객들에게 조용한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 불갑사 대중은 이 작은 새를 ‘만당새’라 부르며 특별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갑사에 따르면 노랑할미새는 지난 4월 20일경 경내를 찾아왔으며, 5월 1일경 대웅전 앞 좌측 괘불대 구멍 안에 둥지를 틀고 알 다섯 개를 낳았다. 현재는 일부 알이 부화해 부모새 두 마리가 번갈아 먹이를 물어 나르며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특히 이번 둥지는 일반적인 노랑할미새의 서식 환경과는 달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보통 노랑할미새는 물가 주변 바위틈 등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은데, 수많은 참배객이 오가는 사찰 중심 공간인 괘불대에 둥지를 튼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불갑사는 현재 새들의 안정을 위해 괘불대 주변에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참배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며 보호에 나서고 있다.

불갑사가 공개한 안내문에는 “부처님 오시는 길, 가장 작고 귀한 손님이 머물고 있다”며 “이곳 대웅전 앞마당 당간지주 구멍 속에 노랑할미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소중한 알을 품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평생 불갑사 중창과 포교에 헌신하시다 지난해 원적에 드신 만당 스님의 지극한 도량 사랑이 이 작은 새의 날갯짓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마음 깊이 머물게 한다”며 “모습은 달라도 생명의 무게는 같고, 이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라고 전했다.

주지 덕상 스님 역시 이번 일을 남다른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스님은 “원래 저 새는 물가 바위틈 등에 알을 낳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자기 괘불대 구멍에 둥지를 튼 것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부처님오신날과 시기가 맞물린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만당 스님께서 상좌들과 신도들을 걱정하며 다시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절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당새’라고 부르게 됐다”며 “단순히 새 한 마리로 보기보다, 도량을 아끼셨던 만당 스님의 마음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아 상좌로서 더욱 뜻깊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불갑사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기간에도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양사 숙원 오백나한전 복원 ‘첫 걸음’

5월 4일 경내서 상량법회
무공 스님 “내년 여름 회향”



백양사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백나한전 복원불사가 마침내 상량에 이르렀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5월 4일 경내 천진암 초입에 새롭게 조성 중인 오백나한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무공 스님과 수좌 일수 스님을 비롯한 백양사 소임자 스님들, 중앙종회의원 덕유 스님,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이번에 상량한 오백나한전은 정면 5칸·측면 3칸 규모의 61평 전통 목조건축으로, 맞배지붕 형식으로 조성된다.

백양사는 향후 오백나한상을 한 분 한 분 친견할 수 있는 내부 배치를 통해 나한신앙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백나한전 복원이 백양사의 오랜 염원이었음을 강조했다. 무공 스님은 “오백나한전은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타 없어진 지 8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며 “백양사의 몇 가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오백나한전 복원불사를 제 손으로 상량하게 돼 참으로 고맙고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상량이 끝나면 내부 시설과 오백나한 성상 조성을 마무리해 내년 여름까지 회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전국 사찰 · 단체, 봉축행사 잇달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에서 봉축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동해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봉축탑 점등 법요식.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히는 봉축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5월 2일 안동 시내 일원에서 봉축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원했다.

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탄생은 어둠 속에서 지혜의 등불이 밝혀진 위대한 사건”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법요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제등행렬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연등을 손에 들고 웅부공원을 출발해 안동 시내 일원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자원 스님)가 주최하고 의성불교신도연합회가 주관, 의성군이 후원한 점등법회가 4월 29일 의성읍 북원로터리에서 열렸다. 지난해 의성 산불로 행사가 열리지 못해 2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사부대중과 지역민들이 대거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연합회장 자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의성군민과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는 4월 30일 정읍시 연지아트홀 로터리 광장에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름을 포용하고 경쟁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경찰서 경승회(회장 송월 스님·성흥사 회주)는 5월 6일 군산경찰서 강당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경승회장 송월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에 오셨듯, 경찰관들 또한 모든 시민이 나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 임정민 군산경찰서장은 경찰 행정 발전과 지역 사회 안녕을 위해 헌신해 온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과 혜윤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동해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담 스님)가 주최하고 동해시불교신도연합회(회장 임승규)가 주관한 ‘동해시 봉축탑 점등 법요식’이 5월 2일 천곡동 동해탑 사거리에서 봉행됐다.

연합회장 정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90일 동안 정성껏 봉축탑을 장엄해 주신 분들과 십시일반 정재를 모아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점등식은 사암련과 신도들이 함께 이룬 원력의 결실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양양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념 스님)는 4월 30일 낙산사 주차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사회 화합과 군민 안녕을 기원했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말, 행동을 늘 돌아보며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 고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현 스님)는 5월 2일 간성읍 달홀공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법요식을 봉행했다.

연합회장 대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갈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오늘 밝힌 봉축 등의 빛이 증오와 대립을 녹이고, 평화의 연꽃을 피워내는 인연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천안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5월 2일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봉축등은 기존 충무병원 인근에서 천안 삼거리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불을 밝혔다.

연합회장 도언 스님은 “오늘 밝힌 등불이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봉 스님)와 불교시설복지관총연합회(회장 도봉 스님)는 4월 30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옆 야탑 다목적광장에서 ‘성남에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주제로 ‘성남 연등회’ 점등식을 봉행했다.

연합회장 도봉 스님은 인사말에서 “성남 연등회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봉축문화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 김선행 · 유재상 · 이동격 지사장

법주사, 부처님 가사불사 회향

삼존대불 가사 공양해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가 5월 1일 대웅보전에서 부처님 가사불사를 회향법회를 열고 새롭게 제작한 가사를 삼존불에 공양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창건주 의신 조사의 가사를 고증해 재현해 의미를 더했다. 증명 법사로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와 회주 소암 도공 대종사, 율주 목은 무상 대종사가 법석에 올랐고, 점안의식 집전은 국가무형유산 불복장작법 이수자와 전승자들이 맡았다.

재현한 의신 조사의 가사를 수하고 법상에 오른 조실 지명 스님은 “가사는 탐진치를 없애고 수행과 포교를 상징하는 법의”라며 “논두렁 밭두렁 모양의 가사는 복밭[福田]의 옷으로, 걸치는 자체가 수행이자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사를 공양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며 오늘 뿌린 공덕의 씨앗은 무량한 열매로 이어져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회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주사는 복원된 가사를 성보박물관에 전시해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이번 가사불사를 계기로 전통 가사 제작과 공양 의식을 기록 보관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용인 호국선봉사 수계법회 봉행

5월 3일 자광 스님 계사로



호국불교의 요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용인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스님)가 5월 3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가족 및 장병 100여 명이 동참해 삼귀의와 오계 수지 의식을 통해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서원했다.

수계자들은 합장한 채 계율을 지킬 것을 서원했으며, 계사인 자광 스님은 계율의 의미와 수행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법문을 설했다. 자광 스님은 법문에서 “계율은 수행의 근본이자 삶의 기준”이라며 “계를 지키는 삶이 곧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에는 최근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상렬 대장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군 지휘관이 직접 계를 수지한 것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군 신행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신원사, ‘중악단 산신대재’ 보존회 출범

5월 2일 출범식 및 학술대회
성관 스님 “의례 가치 확산”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가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 산신대재 보존회(총재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를 출범하고 왕실 산신제 복원과 학문적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신원사는 5월 2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보존회 출범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출범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빈 소개, 경과보고, 창립 취지문 낭독, 출범 선언, 발원문 낭독, 축사와 치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말미에는 보존회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이 이어졌다.

주지 성관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그간 중악단 산신대재가 단편적인 의례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역사적 정통성과 맥락이 훼손되는 상황도 이어져 왔다”며 “국가 제사로서의 본래 위상에 걸맞은 보존과 전승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 왕실 제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 지정과 전승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존회를 중심으로 의례 복원과 학술 연구,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중악단 산신대재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존회 총재를 맡은 원경 스님은 치사에서 “출범은 단순한 단체 설립이 아니라 세월 속에 가려진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왕실과 백성의 염원이 담긴 국가 제사터인 중악단의 전통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고 의례 복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살아 있는 전통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사는 향후 보존회를 중심으로 산신대재 의례를 문헌 기반으로 복원하고, 다례와 국악 등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불청 전북지구, 자비의 김치 나눔

5월 3일 취약계층에 전달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는 5월 3일 정읍 대원김치 공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사 포교국장 효진 스님을 비롯해 학림사 주지 제환 스님,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이 참석했다. 전북지구 소속 회원 40여 명도 팔을 걷어붙이고 김치 담그기에 정성을 다했다.

회원들이 땀 흘려 만든 김치는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무료급식 식당과 보리수마을 어르신 일자리 센터, 전주시 장애인 부모회 등 지역 불교계 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장석희 전북지구장은 “우리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범어사·내소사 대웅전 벽화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보물 지정예고
범어사 벽화 삼불신앙 구현
내소사 벽화 의겸계열 조성
흥국사 천룡도 등 6건 함께

신중일 · 하성미 기자


보물로 지정예고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중 아미타여래삼존도.

부산 범어사와 부안 내소사의 대웅전 내 벽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 6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대웅전 내부 동·서쪽 벽에 그려진 불화 4점으로, 한 공간에 삼불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삼불신앙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황폐해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교의 전통 신앙으로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두고 양옆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해 모시는 게 특징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중앙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주불단 뒷벽에 걸린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동쪽 벽에는 동방 유리광정토를 주관하는 약사여래삼존도 벽화가, 서쪽 벽에는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여래삼존도 벽화가 배치돼 있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의 양 옆문의 위쪽 벽에는 동쪽에 관음보살도 벽화, 서쪽에 달마·혜가단비도 벽화가 배치돼 있는데 이는 달마대사가 관음의 화신이었다는 신앙적 배경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소재로 한 벽화는 청도 운문사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공간적 삼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가 한 공간 내에 구현된 사례는 범어사 대웅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주불전인 대웅보전의 후불벽 뒷벽에 그려진 작품으로, 위쪽에 5개, 아래쪽에 4개의 샛기둥을 설치하여 벽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흙을 발라 화면을 마련한 뒤 그 위에 직접 그렸다.

이 벽화의 내용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한다. 관음보살 머리의 보관 중앙에는 태극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보관의 태극문은 의겸(義謙) 일파가 제작한 개암사 괘불 등에 표현된 것과 같아 이 작품도 같은 화승 집단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유산청은 "내소사 대웅보전 벽화는 의겸 계열 양식 비교·편년 연구의 준거를 제공한다"며 "특히 당시 유행했던 도상과 양식을 잘 담아내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예고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세종 지은 '월인천강지곡', 칸타타로 재현

5월 17~18일 봉은사 · 평택서
김준수 등 당대 소리꾼 총집결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부처님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이 칸타타로 만들어져 상연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과 평택시문화재단(대표 이상균)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봉축음악회-세종대왕께서 지은 부처님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이 5월 17일 오후 4시 봉은사 미륵대불 앞 야외 특설무대와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두 차례 개최된다"고 밝혔다.

'월인천강지곡'은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 전기, 대신과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고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지어 백성들이 부르도록 한 찬불가다. 이는 새로운 창작 찬불가 및 한국 불교음악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다.

'천 개의 강에 달이 비치듯 모든 존재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본래 가사만 전해지던 역사적 문헌을 토대로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작곡가)에 의해 2시간 분량의 교성곡(칸타타)으로 작곡된 '월인천강지곡'은 지난 2023년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 기념 무대에서 첫선을 보이며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음악회에는 지휘 박범훈, 총연출 손진책, 안무 국수호, 노래 및 연기지도에 김성녀가 참여한다. 또한 국악관현악(봉은국악합주단,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에 서양 악기(호른, 트롬본,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객원으로 합류하며, 대규모 연합 합창단(봉은사 슈리말라, 불교음악원 불음꽃, 메트오페라)과 채향순 무용단이 함께 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대 최고의 소리꾼들이 참여한다. 중심 인물인 세존 역은 김준수, 세종대왕 역은 김수인, 소헌왕후 역은 이소연이 맡아 무게감 있는 소리로 극적 전개를 이끈다. 소리꾼 박애리가 교성곡 '니르바나'를 노래하고, 유태평양과 홍승희가 도창 역을 맡아 극의 서사를 완성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공연은 원작 중 핵심 아리아 대목을 엄선하여 약 1시간 20분 길이로 재편성한 것으로 작품의 정수만을 집약해 선보인다"면서 "한국 공연 예술계의 거장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한층 더해 현대 불교 음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나도 할 수 있는 나눔의 능력

㊶ 무재칠시(無財七施)

無 財 七 施

우리는 흔히 '나눔'을 떠올릴 때 두꺼운 지갑부터 생각한다. 많이 가져야 베풀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스스로 결핍된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무재칠시(無財七施)'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요를 일깨운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차선책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닌 능력—존재 자체로 타인을 살릴 수 있는 힘—에 대한 선언이다.

〈잡보장경〉이 말하는 무재칠시는 마음만 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나눔이다. 안시(眼施)는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일이고, 화안시(和顔施)는 온화한 표정을 짓는 일이다. 언사시(言辭施)는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이며, 신시(身施)는 몸으로 돕는 것이다. 심시(心施)는 마음을 여는 일이고, 상좌시(床座施)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며, 방사시(房舍施)는 편히 쉴 공간을 나누는 일이다. 이 모든 나눔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 나눔의 힘을 깊이 드러내는 인물이 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미리엘 주교다. 은식기를 훔치다 붙잡힌 장발장이 경찰에게 끌려오자, 그는 담담히 말한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의 눈빛(안시)과 온화한 얼굴(화안시)에는 낙인도, 경멸도 없다. 오직 한 인간을 향한 온전한 인정이 담겨 있다. 주교는 장발장을 '죄인'이 아니라 '형제'로 바라보았고, 그 따뜻한 시선은 19년의 감옥살이로 굳어버린 심장을 녹였다. 그가 건넨 것은 은식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자리'였다.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의 구두 수선공 마르틴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는 가난했지만, 추위에 떠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와 공간을 내어주고(방사시), 굶주린 여인에게 빵을 나누며 외투를 덮어주었다(심시, 신시). 또한 자신의 낡은 의자를 기꺼이 내주며(상좌시) 좁은 작업실을 온기로 채웠다. 그의 나눔은 거창한 자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여유를 타인의 고통과 잇는 조용한 실천이었다.

두 인물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의 본질을 보여준다. 따뜻한 눈길, 위로의 한마디는 이미 우리 모두가 지닌 온기다. 우리가 나눔을 주저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따뜻함을 잊었기 때문이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라. 마음의 여백을 조금만 내어주어라. 베풂은 남는 것을 건네는 일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를 타인의 삶과 연결하는 일이다. 그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 풍요로운 존재가 된다.

한 자루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힌다고 해서 제 빛이 줄어들지 않듯, 마음을 나누는 일은 소멸이 아니라 확산이다. 오늘, 당신이라는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한 걸음 밀어내 보라.

〈화순 불암사 주지〉

봉정사 괘불, 큐레이터 해설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 5월 전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시 중이다.

큐레이터 해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이번 달에는 상설전시관 5곳과 '역사의 길', 어린이박물관에서 15개의 주제로 주 4회씩 총 16회가 열린다.

불교 관련 프로그램은 총 3개다. 5월 6일 오후 6시 선사·고대관 고구려실에서는 '연가칠년명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리'(박학수), 같은 날 오후 6시 '역사의 길'에서는 '경천사 십층석탑'(신소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월 20일 오후 6시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는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한길중) 해설이 이뤄진다.

'연가칠년명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에서는 금동보살입상의 보존 과정과 노력을 살폈으며, '경천사 십층석탑'에서는 석탑의 입수 과정과 미술사적 가치를 다뤘다.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에서는 부처가 설법하는 장면을 통해 종교 예술의 의미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현희 수습기자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활산 지음 | 양장본
584쪽 | 38,000원



A Study on the Concept of Karma and Social Edification in Northern Dynasties Buddhism

업보業報, 중국 북조의 운명을 바꾸다!

'업보는 어떻게 한 사회의 규범이 되었는가?'

"선을 쌓으면 복, 악을 쌓으면 재앙"이라는 인과응보와 만나
중국 북조 사회를 하나로 묶는 통치 이념과 삶의 기준이 되다

다민족이 뒤섞인 특수한 정치·사회 구조 속 혼란이 이어지던 중국 북조 시기, 불교는 통치층과 민중 모두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업(業)과 업보(業報) 관념은 "선을 쌓으면 복이 따르고, 악을 쌓으면 재앙이 따른다"라는 중국 전통의 인과응보 사상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다. 이와 함께 신분과 지위는 타고난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공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업보 관념은 서로 다른 민족과 출신 집단을 아우르는 공통의 윤리로 자리 잡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스승의 가르침, 제자의 끝없는 나눔으로

스승의날, 師弟에게 듣다

포항 원법사

회주 운보 스님 · 주지 해운 스님

스승의 날을 앞두고 포항 비학산 자락에 자리한 원법사(대한불교유식종)를 찾았다. 2000년 작은 천막 법당에서 시작해 현재 신도 수 2만여 명의 대가람이자 전국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으로 성장한 원법사. 그 중심에는 유식(唯識) 사상을 실천으로 증명해 온 회주 운보 스님과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끝없는 나눔 포교를 펼치고 있는 주지 해운 스님의 각별한 사제지간의 인연이 있다. 이 시대 종교의 참된 역할과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묻기 위해 두 스님을 만나 그 가르침을 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항 원법사 회주 운보 스님(사진 오른쪽)과 주지 해운 스님이 원법사 극락전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비구와 비구니의 경계를 넘어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모습이 현대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

천막법당서 최초 '사찰정원'
2만 신도 도량 일군 원동력
布施는 '베풂' 아닌 '갚음'
회향심으로 실천하는 수행

Q 두 분 스님의 인연이 무척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해운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생사의 기로에서 운보 큰스님을 처음 만나셨다고요.

해운 스님: 절에 와서 수행을 하거나 출가자가 된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전혀 없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5년 가까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육신의 고통이 극심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다 백약이 무효하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이곳 원법사 천막 법당이었습니다.



운보 스님: 처음 왔을 때는 병색이 아주 짙어 겨우 내려올 정도였지.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종교적 지도자로 갈 법(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 함부로 사람을 다루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수행을 통해 법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이지. 그래서 100일 기도를 시켰어.

해운 스님: 큰스님께서는 찾아온 저에게 법당 문을 벌컥 여시고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중생 구제를 할 테니 살려만 달라고 빌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중생 구제가 웬 말인가' 싶었지만, 시키시는 대로 엎드려서 처절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기적처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운보 스님: 모든 기도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성철 스님이 3천 배를 하라고 한 것도 다 나를 낮추라는 의미지.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 독이 돼.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반성이 나와야 진짜 수행이지.

Q 원법사는 최근 창건 25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유식종'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운보 스님: 사람의 몸뚱이는 그저 송장 덩어리일 뿐이고, 실체는 바로 '마음'이야. 마음이 곧 하늘이지.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돌부리에 차여 넘어지면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부리를 만나 넘어지게 된 거야. 유식경전인 〈해심밀경〉은 머리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야. 철저하게 몸으로 체득하고 수행해서 자기 내면의 생리식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지.

해운 스님: 맞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 있다'는 것이 유식불교의 근간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제가 아플 때도 병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셨죠. 우리는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묻기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해결 중심의 명상을 지향합니다.

Q 원법사는 18년간 누적 1만 8천 포가 넘는 쌀 나눔과 특히 장학 사업으로 유명합니다. 나눔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운보 스님: 사람들은 보시(布施)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 착각하는데, 보시는 베풀 '보'가 아니라 갚을 '보(報)'야. 돌아다니며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부모 대에 지은 빚이 있다면 자식 대에 와서 하는 일이 자꾸 막히게 돼. 이런 빚을 사회에 환원하고 갚아야 가정이 풀리고 삶이 달라져. 절에 들어온 돈은 공적인 돈이야. 이 돈을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면 천벌을 받고 대대손손 망하게 돼 있어. 남의 돈을 받았으면 적선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먼저야.

해운 스님: 제가 출가 후, 큰스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 전에 들어온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20kg 쌀 20포로 시작해 1년에 평균 1,000포씩 18년간 1만 8,100여 포를 나눴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찰 내부의 반발이 컸습니다. 어느 해 쌀 600포가 들어왔는데 절에 4포만 남기고 다 나누자, 보살님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사냐'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는 어떻게든 살지만, 저분들은 이게 없으면 힘들다. 나눔은 갚는 것이며 수행의 일부다'라고 꾸준히 알렸습니다. 지금은 신도님들이 태풍,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봉사에 앞장설 만큼 자비롭게 변하셨습니다.

Q 큰스님의 가르침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눔의 일화가 있습니까?

해운 스님: 출가 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양주 보살님에게 '나한테 좋은 음식 주려고 냉장고에 좋은 재료 재어놓지 마라'고 신신당부하신 점이었어요. 그 아낌없는 나눔의 철학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큰스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신도든 행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찾아오시는 모든 분께 따뜻한 한 끼를 권하셨어요. 절집 살림이 넉넉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늘 그러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베푸는 것이 곧 부처님의 일'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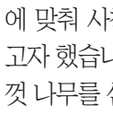
이 가르침이 그대로 원법사 장학회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에 대한 마음과, 큰스님의 말씀이 만나서 2015년 장학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수 있었어요. 매년 동지에 팥죽을 쑤고, 설날에 쌀을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이것이 큰스님께서 남겨주신 회향의 원칙입니다.

Q 장학 사업의 규모도 엄청납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지역 미래 불자 육성장학' 1호 기부자이기도 하신데요.

해운 스님: 제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재학 시절 전액 장학금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경북 출신 유학생들을 위해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했죠. 이 소식이 일종의 마중물이 되어 전국 사찰이 참여하는 대규모 릴레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단순합니다. 회향 발원이 2015년 1월 원법사장학회 정식 설립으로 이어졌고, 2021년 동국대 서울캠퍼스 '지역 미래 불자 육성장학' 1호 기부자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WISE캠퍼스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7명의 학생에게 4억 4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이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학생이 자라서 사회의 동량이 되고, 또 다른 후배에게 그 마음을 회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희 장학생들이 매월 1만원씩 1년간 장학회에 재기부 약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Q 최근에는 글로벌 장학으로도 범위를 넓히셨다고요.



해운 스님: 네, 장학 수여가 100회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한국티벳 불교 장학협회를 결성해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인가를 받고 부처님 진신사리도 하사받았죠. 현재 티베트 출신 유학생 3명이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만든 한과 수익금, 카페 수익금 등을 악착같이 모아 전부 장학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국대 약학대학에 '약사여래'라는 불교동아리가 창립되었고, 불교동아리들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는 이 시대의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에도 가장 진보적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첨단의 사상입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법을 만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길에 원법사가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Q 사찰 카페부터 정원 등 원법사 도량은 돋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운 스님: 우리는 천막 법당 시절부터 명상수행(위빠사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명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량에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 않죠. 대신 현대인들의 니즈에 맞춰 사찰을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도회장님 내외가 7년간 정성껏 나무를 심어 전국 최초로 '사찰형 민간정원'으로 등록되었고, 신도분들이 저마다 구획을 맡아 관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퓨전 다도와 '수라간'이라 불리는 사찰 음식팀의 정갈한 음식도 원법사의 자랑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누구나 정원에서 위로를 받고,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장학 불사에 동참합니다. 천주교인이나 비불자들도 오셔서 감동받고 십시일반 장학금 약정서를 써주실 정도니까요.

18년 이어온 자비의 쌀 나눔
매년 1000포 불우이웃 전달
2015년 '원법사장학회' 출범
747명에 4억5천여만원 전달

Q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불교와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운보 스님: 앞으로 종교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그 마음 속에 맺힌 응어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있지. 그래서 원법사에서는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는 수행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며칠씩 묵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야.

해운 스님: 큰스님 말씀처럼,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세상 속으로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저희 원법사는 누구나 와서 쉬어가는 명상 정원이자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남겠습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고통받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삶의 해법이 되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갚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개산재에 열린 제21회 장학금 수여식.



동국대 미래장학에 1회, 101회 등 10여 차례 참여했다.


나눔 실천을 행하는 두 사제의 미소가 꽃보다 아름답다.


꽃이 만발한 조사전. 계곡따라 전각이 자리하고 있다.


원법사 까페 '인연' 모습. 수익금은 인재 불사에 쓰인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6~5/1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필사책	정운	유노북스
2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	원택	장경각
3	불교 한자 입문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4	신심명 강설	진우스님	불교신문사
5	지장경	광덕 역	불광출판사
6	화엄경 약찬게	용학	담앤북스
7	금강경(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9	마음으로 그리는 극락세계	무비감수	한영출판사
10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
2	경허선사어록	경허/무이 거부 역주	무이정사
3	초기불교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4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운주사
5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다르마와 DNA	디 덴버	운주사
7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8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9	숫타니파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행복에는 독립성이 없다"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지안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반야암 산책길서 길어 올린 수상
맑은 찻물 같은 문장이 주는 여운
"행복은 오직 마음 사이에 깃든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우리는 스승에게 '큰 가르침'을 기대한다. 삶을 단숨에 바꿀 조언, 죽비를 내려치는 듯한 깨달음 같은 것들이다. 그 대상이 우리 시대의 대강백, 지안 스님이라면 기대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산수(傘數, 80세)를 맞아 스님이 건네는 가르침은 의외로 짧고 단순하다. "행복에는 독립성이 없다."

"남은 불행한데 나만 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은 오직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깃든다."

행복은 고립된 상태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뜻이다. 스님이 말하는 행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연결'의 결과다.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는 지난 10여 년간 써온 수필을 모은 수상록이다. 통도사 반야암에서 반세기 넘게 교학을 연구하고 제자를 길러온 스님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법당을 드나들고 오솔길을 거니는" 삶에서 "사색의 호주머니에 이런저런 생각을 담고 구름다리를 건너듯 상념의 공간을 오간" 흔적이다.



우리 시대 대강백 지안 스님이 10년 만에 펴낸 수상록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한다. 사진은 통도사 반야암 숲길을 산책하는 지안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스님의 하루는 산책으로 시작되고 산책으로 마무리된다. 처소 오른쪽엔 오죽림(烏竹林)이 있고 왼쪽엔 맑은 계곡이 있다.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산의 이마가 보이고 꼭대기에 일출이 닿는 기미가 보인다. 정갈하게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며 '물과의 악수'를 나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각에 정신이 맑게 깨어난다. 스님은 이 산책을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계절의 흐름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 인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문득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결을 담담히 포착한다. 숲길을 걷고, 비를 맞고, 구름을 바라보는 장면들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삶의 본질을 비춘다. 해가 뜨면 눈부시게 행복하고, 별이 뜨면 조용히 반짝이는 삶.

책의 중심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고백이 놓여 있다.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러나 스님은 그 확신이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관계는 경쟁과 설득의 장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자리로 바뀐다.

특히 인연에 대한 통찰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편안함이 커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미안함'이 앞선다고 말한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마음. 이는 관계가 부담스러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표다. 이처럼 스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감정의 결을 다시 성찰하게 만든다.

'거룩한 후퇴'라는 개념도 인상적이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요받는 시대에, 스님은 멈춤과 물러남의 가치를 말한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이며, 나이가 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라는 통찰이다.

스님의 사색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문장들은 맑은 차와 같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책을 덮고 난 뒤에도 오래 여운을 남긴다.

꽃으로 피어난 수행의 언어



꽃이 아름다운 이유
안양규 시집
올리브그린
1만5000원

불교학자 안양규 교수 첫 시집
학문·수행 녹아든 시 100여 편

명상심리상담 전문가인 안양규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는 어린 시절 시인을 꿈꿨다.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인생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시(詩)"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를 공부하며 여러 편의 시를 썼지만, 영국과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점차 시와 멀어졌다. 그러다 10여 년 전부터 다시 시를 마주하게 됐다. 그렇게 쓴 200여 편의 시 중 100여 편을 선별해 첫 시집 〈꽃이 아름다운 이유〉를 상재했다.

시집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붉은 눈을 부릅뜬 / 기다란 쇠구렁이"('지하철' 중에서)를 타고 출근하다 보면 "105동 아파트 옆 구리에서 / 하얀 연기가 연거푸 / 뿜어져 나오고"('겨울 도시의 아침 풍경' 중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문득 "나도 꽤 긴 시간 / 이 동네에 살다 보니 / 이제 이 동네 주민이 되어 / 불평 없이 그럭저럭 잘 먹고 지내"고 있다며 위안한다.

2부는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간다. 자연은 그 자체로 설법이며, 시인은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길어 올린다. 시인은 "자연이 나에게 글을 쓰게끔 했다"고 말한다.

3부에서는 시선이 '나'를 향한다. 머리를 감다가 빠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노화를 체감하고,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허무를 느끼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찾는다.

4부는 시인이 그간 간절히 추구했던 깨달음과 성불의 경지를 보여준다. 시인은 "깨달음은 / 모든 것을 포용하는 침묵이고 / 끝없이 베푸는 사랑"('깨달으면' 중에서)이고, "단단하게 얼었던 / 마음이 / 사랑의 입김으로 / 부드럽게 풀리는 것"('성불' 중에서)이라고 노래한다.

이강옥 영남대 명예교수는 "평생 갈고닦은 지혜와 수행을 시라는 자비의 그릇에 담아 올리는 공양물"이라는 시평을 남겼다. 여수령 기자

여말선초, '전환'의 시대



여말선초 고승 나옹과 무학
황인규 지음
민족사
4만5000원

'권승(權勝)' 덧씌워진 무학 대사
스승 나옹·문도와 불교 혁신

여말선초는 흔히 '불교의 쇠퇴기'로 요약된다. 이 익숙한 서술에서 불교는 시대의 중심에서 밀려난 종교로 이해되기 일쑤다.

저자는 무학 대사에 관한 교양서 출간을 의뢰받고 자료 조사를 시작하다, 그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잘못 알려지거나 야사에 불과하다는 데 '황당함'을 느꼈다. 이후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며 무학 대사와 그의 스승 나옹 혜근 선사가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음을 밝혀냈다.

〈여말선초 고승 나옹과 무학〉은 풍수 도참가, 혹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권승'의 이미지로 덧씌워진 무학 대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복원한다. 이 과정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옹 선사로 확장된다. 무학의 스승이자 고려 말 불교계를 이끈 핵심 인물인 나옹은 지공으로 이어지는 법맥 위에 서 있다. 이른바 '삼화상'으로 존숭되는 이 계보는 여말선초 불교의 사상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축이다.

특히 나옹과 그의 문도들은 회암사 중창을 비롯해 오대산과 용문산 일대에서 불교 중흥을 도모하며 지역 기반을 확장했다. 이는 불교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 속에서 재편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말선초를 '단절'이 아닌 '전환'의 시대로 재정의한다. 억불 정책 속에서도 수행과 교화의 맥은 끊어지지 않았고,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실천은 지속됐기 때문이다.

저자는 "나옹과 무학, 그들의 문도들은 선풍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를 혁신하고자 했다"며 "특히 이들은 서산 일대와 고창 선운사 등을 중심으로 불교 흥법을 펼쳤다는 사실이 '선운사 사적기문'으로 처음 밝혀지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세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승가의 첫발, 승보로 거듭나는 관문

〈僧寶〉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⑤ 출가와 수계



스스로 정진의 길을 택한 출가자에게 수계란 매우 엄중한 일이기에, 의식 또한 매우 엄숙하게 진행된다. 사진은 조계종이 4월 16일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한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atha kho āyasmā Aññātakoṇḍaññho diṭṭhadhammo pattadhammo viditadhammo pariyogāḷhadhammo tiṇṇavicikiccho vigatakathaṃkatho vesārajjappatto aparappaccayo satthu sāsane bhagavantaṃ etad avoca : labheyyāhaṃ bhante bhagavato santike pabbajjaṃ, labheyyaṃ upasampadan ti. ehi bhikkhū'ti bhagavā avoca, svākkhāto dhammo, cara brahmacariyaṃ sammā dukkhassa antakiriyāyā'ti. sā'va tassa āyasmato upasampadā ahosi.

爾時尊者阿若憍陳如. 見法得法成辦諸法已獲果實. 前白佛言. 我今欲於如來所修梵行. 佛言來比丘. 於我法中快自娛樂. 修梵行盡苦原. 時尊者憍陳如. 卽名出家受具足戒. 是謂比丘中初受具足戒. 阿若憍陳如為首.

존자 앙냐 꼰당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깨우쳐 들어가, 의심을 뛰어넘고 의혹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여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세존께서 말했다. "비구여,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는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존자에게 구족계가 되었다.

– 마하박가 대건도 –

동안거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봄이 오면 조계종에서는 많은 수계(授戒)식이 거행된다. 출가하여 행자 생활을 거쳐 예비 승려가 되는 사미(沙彌)·사미니(沙彌尼) 수계식, 여성 출가자에게만 이루어지는 비구니가 되기 전 2년 동안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수계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 구족계(具足戒, upasampadā) 수계 의식이 그것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이 열려 42명의 비구 스님과 31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하며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최초로 구족계를 받은 이들은 붓다와 함께 출가하여 고행 정진했던 다섯 명의 수행자였다. 붓다는 깨달음을 성취한 후 첫 교화 대상으로 녹야원에서 정진 중이던 이들을 찾아갔고, 붓다의 설법을 들은 교진여가 가정 먼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붓다에게 정식으로 구족계를 청하여 첫 비구가 되었다. 첫 비구가 탄생하면서 불교의 근본 귀의처이자 소중한 보물인 삼보(三寶)가 비로소 완성됐다.

삼보 중 불보(佛寶)는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며 성립됐고, 법보(法寶)는 타붓사와 발리카 두 상인에게 행한 첫 설법을 통해 성립됐다. 마지막 승보(僧寶)는 붓다와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출가 서원을 통해 성립돼 삼보의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이처럼 삼보에 대한 귀의는 수계의 시작이다. 삼귀의를 기점으로 출가자 또는 재가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기에 불교에서 삼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출가자에게 수계는 타인의 권유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기에, 재가자와 달리 수계 의식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된다. 또한 출가자는 재가 신자에게 존경과 복덕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의식은 더욱 장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계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결계(結界) 구역을 설정한다. 결계 구역은 계를 주는 스승과 계를 받는 수계자만 입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계식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출가자의 수계는 계단(戒壇)에 올라 이루어진다. 계단(戒壇)은 평지보다 조금 높게 만드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3층(層) 형태를 띠게 됐다.

> 삼보 귀의로 여는 참된 불제자의 길
> 고귀한 결단, 엄숙한 의식으로 장엄
> 출가 엄중함 새겨 높은 계단서 진행
> 진정한 수행자 서원·실천 의지 담겨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수지자 대표 스님이 수계증과 도첩을 받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우리나라 영축산 통도사의 금강계단(金剛戒壇)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계단을 높게 만든 이유는 출가와 수계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 깊은 계단으로는 불보사찰인 통도사 금강계단, 김제 모악산 금산사 방등계단, 달성 비슬산 용연사 금강계단 등이 있다.

계단에는 수계자와 그 수계를 증명하는 스승인 3사(三師) 7증(七證)인 열 분의 스님을 모신다. 과거에는 가장 높은 3층 단에 붓다를 대리하는 권위를 가진 3사를 모셨다. 3사란 계를 관장하는 전계대화상, 의식을 주관하는 갈마아사리, 규율과 위의를 가르치는 교수아사리를 말한다. 여기에 수계가 여법하게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일곱 분의 존증아사리가 함께 한다. 다만 오늘날에는 단의 구분 없이 동일한 높이의 단에서 의식을 진행한다.

vippasannāni kho te āvuso indriyāni, parisuddho chavivaṇṇo pariyodāto, kaṃ'si tvaṃ āvuso uddissa pabbajito, ko vā te satthā, kassa vā tvaṃ dhammaṃ rocesīti. atth' āvuso mahāsamaṇo Sakyaputto Sakyakulā pabbajito, tāhaṃ bhagavantaṃ uddissa pabbajito, so ca me bhagavā satthā, tassa cāhaṃ bhagavato dhammaṃ rocemīti.

我師大沙門. 是我所尊. 我從彼學. 優波提舍卽復問言. 汝師大沙門說何法耶. 報言. 我年幼稚出家日淺. 未堪廣演其義.

[사리불]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에 의지하여 출가했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앗사지] "벗이여, 석가족 출신의 석가의 아들인 위대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세존께 의지해서 출가했고, 그 세존께서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 마하박가 대건도 –

수계식에서는 모든 계율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붓다 당시부터 승가에서 추방될 수 있는 중죄인 4바라이는 반드시 설명하도록 돼 있다. 수계 이후 바라이죄를 몰라 범계(犯戒)하고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출가자의 최소 생활 방식인 4의지(依止, 탁발·분소의·수하좌·부란약)도 함께 설명한다. 이는 출가 생활의 실상을 미리 알려주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수계는 단순히 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규칙과 생활 방식을 전수하는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구족계를 통해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지킬 것을 서원한다. 모든 계율이 완벽하게 구비돼 깨달음으로 나아갈 바탕이 됐다는 의미에서 구족계라 부른다. 예비 출가 단계인 사미·사미니는 10계, 식차마나니는 6계를 지키며 구족계를 받을 준비를 한다.

비구의 250계를 한 번이라도 어겼다고 해서 모두 승가에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엄격한 처벌은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로, 이를 범하면 승가에서 영구 제명되며 다시는 출가할 수 없다. 그 외의 죄들은 선배 스님들에게 배워 익히며 참회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처벌의 종류에는 바라이 외에도 20인 이상의 승가 의결이 필요한 승잔(僧殘, saṃghādisesa), 2~3명의 스님 앞에서 참회하는 바일제(波逸提, pācittiya), 1명의 스님에게 참회하는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pāṭidesanīya),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는 돌길라(突吉羅, dukkuṭa) 등이 있다. 이처럼 출가자가 받는 모든 계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수계는 출가자로서의 시작임과 동시에 삼보의 한 축인 승보가 되어가는 신성한 과정이다. 수계에는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서원과 실천 의지가 담겨 있다. 계를 받은 후에는 이를 지키려 노력하되, 혹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를 통해 다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그대는 자비보살

이춘성 제15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춘성 제15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대한불교신문사 기자를 시작으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총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아 지역 사회복지의 실무를 이끌었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참여위원장, 부산복지개발원 이사 등을 지내며 폭넓은 경험과 행정 식견을 쌓았다. 현재 부산 문수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이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인권위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이사, 심정이문수노인복지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부산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사회복지는 하심으로 복 짓는 수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네가 하심(下心)하며 잘할 수 있겠느냐”

이 한마디가 삶을 관통하는 화두가 됐다.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가 제자 이춘성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던진 물음이다.

1999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스승은 단호했다.

“평생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진정으로 잘해낼 자신이 있다면 위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

제자는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스승은 그 대답을 믿고 중책을 맡겼다. 그로부터 30여 년, 제자는 소외된 이웃들을 부처님처럼 모시며 부산 불교 복지의 든든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최근 제15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에 섰다. 그러나 그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하심’이다.

스승의 가르침 “세상에서 복 지어라”

스무 살 무렵, 방황하던 청년 이춘성은 부산 감로사에서 혜총 스님을 처음 만났다.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운 스승은 그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군 복무와 대학 시절에도 감로사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했다. 1985년경, 출가를 결심하고 감로사로 들어가 3년여간 아침저녁으로 지극한 예불을 올리며 행자 생활을 했다.

하지만 뜻밖의 인연을 만나 결혼하면서 출가의 뜻을 접게 됐을 때, 스승은 큰 동량(棟梁)을 잃었다는 아쉬움에 크게 서운해했다. 그렇지만 깊은 인연의 끈은 다시 이어졌다. 스님은 그를 불렀다.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야 한다. 복지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하되, 철저하게 하심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으로 복 짓는 일이 될 수 없다.”

스승은 제자의 복밭[福田]을 관리하듯 재차 당부했다. “하심해라,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마라,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리지 마라.”

척박한 비탈길, 자비 도량으로

부처님과 은사 스님,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는 가진 역량과 열정을 복지 현장에 쏟아부었다.

용호동 일대는 한국전쟁 피난민과 도심 철거민들이 산비탈로 밀려와 정착했던 곳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복지 취약 지구였다.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영세민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대거 밀집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다. 밀려드는 복지 수요에 비해 예산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매일같이 펼쳐졌다.

그는 책상 대신 골목을 택했다. 가파르고 후미진 골목골목을 두 발로 누비며 주민들이 삶을 직접 마주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방적인 서비스 공급은 오히려 주민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복지의 방향을 바꿨다. 소외된 이웃을 복지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이자 한 분의 부처님으로 모시는 자비행이다.

주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그의 진정성 있는 헌신은 곧 성과로 이어졌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행정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했다.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구축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어울림 효 한마당’을 개최해 세대 간 화합을 이끌었고, 마음동행(노인맞춤돌봄)과 내일리스타트(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안착시켰다. 솔선수범해 ‘사회복지사 1호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척박한 현장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부산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여하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관으로 우뚝 섰다. 척박했던 산동네는 어느새 희망이 샘솟는 자립의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그와 함께 골목을 누비며 땀 흘린 직원들 역시 부산 불교 복지의 ‘최고 에이스’로 성장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증명해 낸 이 빛나는 성과와 리더십은 그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라는 더 큰 원력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복지계에 신선한 울림을 준 것은 그의 ‘아름다운 물러남’이었다. 그는 보장된 정년을 고수하지 않고 후배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일찍이 관장직을 내려놨다. 후배 세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미래 복지를 고민한 결과다. 그는 복지 현장이 끊임없이 젊어지고 역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후배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선배가 되기 위해 그는 수년 전부터 물러남을 준비해 왔다.

부산 복지의 새 지평 열다

330만 부산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이 회장은, 그간 보여준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취임

혜총 스님 ‘하심’ 가르침, 30년 원력의 뿌리

용호동 산비탈 누비며 주민 주도 모델 구축

“이웃을 일방적 수혜 대상 아닌 부처님으로”

‘아름다운 물러남’ 택해 후배 성장 기회 열어

“10대 중점 사업으로 부산형 K-복지 세계화”

식에서 화환 대신 쌀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 회향하며 자비 나눔의 모범을 보인 그는, 협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단순히 일선 기관들의 민원을 취합해 관에 전달하는 하청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와 의회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당당한 정책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는 ‘부산 시민에게는 든든함을, 사회복지 현장에는 탄탄함을, 우리의 미래는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장 직속 기구인 ‘미래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기동력을 끌어올렸다. 또 올해를 ‘복지 기반 새 틀 구축의 해’로 삼아, 시민과 현장 전문가가 직접 현안 의제를 논의하는 ‘100인 복지 커넥트(타운미팅)’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파편화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그의 원력은 부산 복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10대 중점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대 사회복지의 태동지였던 부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부산 복지 100년사 아카이빙 및 성지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산 복지의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우수한 복지 실천 기술을 전수하는 ‘부산형 K-복지 세계화’를 추진해 국제적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명장’ 제도와 ‘의정 대상’ 신설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예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사회공헌(ESG)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매칭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외연을 민간 영역까지 든든하게 확장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심을 수행 삼아 최선 다했습니다”

이 회장의 복지 철학 뿌리에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던 할머니의 뒷모습이 자리하고 있다. 그때 싹튼 불교적 감수성은 그가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은사 혜총 스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선지식과의 인연이 삶을 이끌었다. 현재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지원 스님과는 대한불교신문 기자 시절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역시 그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스승이다. 이 회장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정관·정년·범산·수불·지현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의 원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은사 혜총 스님이 내린 ‘하심’이라는 화두를 가슴에 품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꽃피워 낸 이춘성 회장. 내생의 출가를 굳게 기약하며, 금생의 치열한 복지 현장을 도량 삼아 묵묵히 맑은 복을 지어가고 있다.

인터뷰 말미, 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스승이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스님, 하심을 수행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봉암사 기도를 위해 산에 오르던 중, 은사 혜총 스님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춘성 회장.



2023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당시 감사패를 수여한 모습.



2019년 5월 열린 ‘제14회 용호장승축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이춘성 당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에서 직접 배식에 나선 이춘성 회장.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78호 | 14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밑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수익
- 시세 70억 매가 : 45억
  주차가, 매수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 위치 : 경남 사찰
- 부지 : 20000평
- 대웅전 70평 외 전각 다수
- 산 밑 버스진입 및 주차
- 급매가 : 2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채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사 찰 안 내

땅 값만 받습니다.
매매시 지방문화재 1점 기증

- 위치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124-5, 황룡사
- 총 1197평 / 대지 1080평
  종교 · 도로부지 117평
- 대웅전 43평
  삼성각 2평, 용왕각 3평, 진신사리3층석탑
- 요사채 1층 38평 외 공양간 30평
  2층 25평, 주차공간 넉넉
- 태양광 6kW, CCTV 완비
- 창고, 정자, 저온창고, 우물, 녹차밭, 야외화장실
- 가격10억(2억5천 융자 포함) 조정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창원시 경계지역)
- 규모 : 토지 350평
- 사용면적 : 약1,000평
  법당. 종각. 삼성각. 요사채. 공양실
  스님 몸만 오시면됩니다
- 법당 법구일체
  냉장고.세탁기등 모두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2억5천만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7평, 법당 옆 넓은 거실 합 30평
  공양간 17평, 방7개, 목욕탕 3개,
  외부화장실 2개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 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조경완비, 집기모두 드림
- 손볼것 없는 깔끔한 도량
- 가액 : 2억 3천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토 굴 급 매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6500만원
- 교통편리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병원10분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요사채3동, 정남
- 2차선 버스정류장에서 100m
- 가액 : 3억, 조정 무

010-9388-0215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300평, 법당 23평,
  종무소 10평, 요사채 40평
- 마애불, 법당4평, 산신각, 용왕전
- 태양광-태양열 설비 완비
- 가액 : 3억 3500만원

010-5097-528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창원 마산 서성동 대로변 2층(마산 어시장 인접)
- 규모 : 2층 43평
  법당 : 삼존불
  방 : 2(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 1000 월 40
- 철학관 / 무속 추천
- 즉시법회 가능

010-9276-5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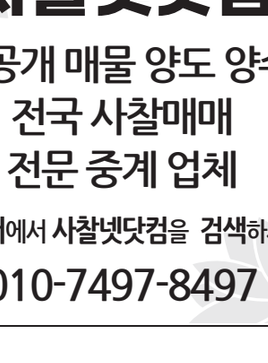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 · 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디스크, 협착
만성통증, 만성질환
파킨슨, 뇌질환
호르몬, 신경계
머리~척추~골반&균형
백화선원
좋은바디운동교정협회

010-7772-7886 선산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법화종 100년 기틀 닦는 80주년 해로”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① 법화종 80년, 새시대 새울림
② 총무원장 관효 스님에 듣다
③ 법화종 이끄는 스님들 만나다
④ 종정 스님께 듣는 법화 지혜
⑤ 사진으로 보는 법화종 발자취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 80주년이라는 장엄한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2026년. 지난 수년간의 기나긴 내홍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정상화와 도약을 이끌고 있는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만났다.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스님의 말씀에는 수행자의 단단함과 행정가로서의 예리한 통찰이 묻어났다. 노덕현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혜관정사 뜰에서 관효 스님이 미소짓고 있다.

Q. 창종 80주년을 맞는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 80주년을 맞기까지 선대 스님들과 종도들이 지켜온 법등이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다시 종단을 세워야 했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80주년은 축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묻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저는 총무원장이나 주지 같은 소임을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단이 어려운 때에 ‘누군가 해야 한다’는 인연이 왔고, 그것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종단 일을 맡은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종도들에게 화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종 80주년의 감회도 결국 그 한마디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공심으로 종단의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출가 인연과 스승의 은혜가 오늘의 소임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열일곱 살에 출가했습니다. 출가한 뒤 “중이 되었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출가한 지 사흘 만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았습니다. 당시 절에 주지도 없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감원처럼 일을 맡게 되었고, 신도들 앞에서 〈팔상록〉을 읽어드리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때 이미 포교의 씨앗이 제 안에 들어온 셈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는 해인사로 다시 가서 공부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후 여러 인연을 거쳐 스물여덟 살 무렵 제주에 돌아왔고, 포교당을 짓고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부친과도 같은 은사 스님이 계셨고, 혜관정사 인연을 열어주신 은사 스님도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노릇을 해보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무원장 소임도 제 개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은혜를 종단을 바로 세우는 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Q. 길었던 내홍이 마무리되고 종단 안정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종단이 어려웠던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화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함께 살아가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 절, 자기 이해관계만 앞세우면 종단은 대중이 아니라 개인전이 됩니다. 종단을 생각하는 애종심보다 개인의 편의와 이익이 앞서면 법도 흐려지고 제도도 흔들립니다.

오랜 갈등 속에서 법적 다툼도 많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사가 끝났다고 마음까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단을 살리는 길은 결국 화합입니다. 다만 그 화합은 좋은 말로 덮어두는 화합이 아니라, 법화경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화합이어야 합니다.

Q. 총무원장으로서 종무행정을 이끌며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안정화 핵심은 종단 화합
> 종헌·종법 개정, 정비 원년
> 종단 교육도량 구성 목표
> 스스로 정화, 보살행 구현”



저는 종단 재정을 공공성과 투명성 위에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를 가장 먼저 손대야 했습니다. 종단 재정은 오랫동안 교구별로 제각각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로로 발급되는 계좌로 공식 납부하는 투명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설명할 수 있고 종도들로부터 감시받는 체계가 있어야 재정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종단의 자산을 공적으로 지키는 제도가 마련되면, 불사도 훨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종도들의 마음도 모일 것입니다.

제가 중점을 둔 것은 공심과 하심입니다. 먼저 듣고, 버티고, 원칙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총무원은 종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도들이 마음 놓고 수행하고 신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중앙이 바로 서려면 교구와 사찰이 살아야 하고, 교구와 사찰이 살려면 총무원이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종무행정은 찾아가는 행정, 도와주는 행정, 공적으로 설명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종헌·종법과 재정, 인사, 교육의 기준이 공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정 이후 종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봅니다.

Q. 종헌·종법 전면 정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하듯, 대한불교법화종 승려라면 대한불교법화종의 종헌·종법을 따르는 승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헌·종법을 전면 수정하고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 개편은 행정 문구를 손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단이 사회 앞에서도 당당한 종단이 되고, 승려가 출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법화행자가 가야 할 길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재정은 어떻게 투명하게 다룰 것인가, 종찰과 공적 자산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육과 수계는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다시 같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Q. 창종 80주년을 계기로 추진할 핵심 종무 방향은 무엇입니까.

80주년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80주년 이후에도 남을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는 종헌·종법 전면 정비입니다. 둘째는 안정사를 승려 교육도량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셋째는 종찰과 전통사찰, 주요 사찰을 바탕으로 공적 재산 관리와 재정 투명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넷째는 제주교구를 비롯한 각 교구를 다시 결속시키고, 전국 사찰 순례를 통해 숨어 있는 종도와 인재를 찾는 일입니다.

법화종의 미래 100년은 구호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도와 교육과 사람이 함께 서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창종 80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미래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Q. 종단 재정의 공공성과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단이 안정되려면 재정도 공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종찰이라는 것은 본래 개인이 마음을 내어 종단에 기부한 사찰들입니다. 그런 사찰과 총본산 안정사를 비롯한 공찰을 바탕으로 재단법인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담금도 과거처럼 교구별로 제각각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로로 발급되는 계좌로 공식 납부하는 투명하게 받고 다시 각 교구에 배분하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설명할 수 있고 종도들로부터 감시받는 체계가 있어야 재정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종단의 자산을 공적으로 지키는 제도가 마련되면, 불사도 훨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종도들의 마음도 모일 것입니다.

Q. 제주교구 복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제주교구는 현재 25개 사찰을 기반으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큰 사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혜관정사를 비롯해 대원정사처럼 제주 불교사의 인연을 품은 도량들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법화종이 새롭게 결속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제주교구의 스님들은 연로하신 분들도 많지만, 기본과 의식, 수행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제주교구를 다시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주교구 복원은 단순히 한 교구를 다시 열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종단이 혼란을 지나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상징입니다.

Q. 전국 13개 교구와 1,000여 사암의 결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원장이 된 뒤 처음 생각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전국 순례였습니다. 사찰을 보러 다니는 것보다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단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재를 찾아야 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찰도 찾아가야 합니다. 종단이 결속하려면 총무원과 교구가 서로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연락만으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 사찰을 순방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종단을 이끌 인재를 찾고, 어려운 사찰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 100년의 밑돌입니다.

Q. 법화경의 화합 사상과 보살행을 오늘의 종단 운영에 어떻게 구현해야 합니까.

법화경은 화합의 경입니다. 법화행자는 법화경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과 글과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희입니다. 종단의 좋은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하느냐” 하고 시비하는 마음보다, 부처님 법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힘을 보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경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도 상대를 부처가 될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공경 위에서 원칙을 세울 때 진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Q. 법화종 사부대중과 불자,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불자들에게 먼저 자기 마음을 정화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따라 미워하고, 남을 따라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것이 불교의 기본입니다.

법화종 종도들에게는 법화경 말씀을 따르는 법화행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묘법을 찾고, 그 마음으로 가정과 사찰과 사회를 맑히는 사람입니다.

창종 8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지난 어려움이 우리 종단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의 법화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법화경의 보살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서 열릴 것입니다.



‘힙한 불교’, 자비 향한 ‘수행의 언어’로 여물어야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⑥ 밈이 된 목탁, 굿즈가 된 불상
: 불교 흥행의 언어를 다시 묻다



현재의 불교 유행은 ‘기표’만 화려하게 부활했을 뿐, 수행과 해탈, 깨달음이라는 본질적 ‘기의’는 실종된 상태에 가깝다. 거룩한 뜻은 사라진 채 ‘힙한 기호’로 소비되는 현상이 자칫 본질적 의미를 잃은 소란함만 남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저잣거리로 내려온 불교

몇 주 전, 서울 봉은사에서 ‘2026 야단법석, 마음을 밝히는 밤’ 페스티벌이 열렸다. 천년 고찰의 단청을 화려하게 수놓은 레이저 조명, 그리고 DJ의 강렬한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드는 남녀노소와 외국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탈종교 시대’에, 유독 불교만이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대중들 사이로 걸어 들어온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마치 1300년 전, 원효 대사가 법복을 벗어 던지고 박을 두드리며 저잣거리를 누볐던 ‘무애무(無碍舞)’가 현대적으로 재현되는 듯한 환희마저 느껴졌다.

같은 날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역시 인산인해를 이루며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했다. 형형색색으로 디자인된 목탁과 불상, ‘깨달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와 생활용품이 진열된 부스마다 젊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MZ세대의 ‘힙한’ 성지로 거듭난 그곳에서 불교 중흥의 새로운 서막을 보는 듯했다. 대중과 호흡하기 위한 이러한 변신은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혁신적인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 벅찬 감동의 여운이 잦아든 자리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본다. “왜 대중은 지금의 불교에 열광하는가?” 이 찬란한 흥행이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이 힙한 불교의 본질을 엄격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왜 ‘스님’은 매력적인 밈이 되었는가

최근 몇 년 사이 한 연예인이 ‘뉴진 스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희화화의 대상으로 소비되던 스님 캐릭터가 이제는 포교의 전면에 등장했고, 종단의 공식적인 지지까지 얻으며 대중적 영향력을 확장했다. “극락도 락(樂)이다”, “번뇌컷”, “부처 핸즈 업”과 같은 표현들은 SNS와 숏폼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왜 하필 ‘스님’인가. 만약 다른 종교의 성직자 캐릭터가 동일한 방식으로 등장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반응이 가능했을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정도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스님은 현대 밈 문화에서 매우 강력한 기호다. 그 이유는 스님이 가진 극단적인 ‘정적 이미지’와 클럽이라는 ‘동적 공간’ 사이의 거대한 괴리에 있다. 침묵과 수행을 상징하는 존재가 강렬한 비트 위에 올라서는 순간, 대중은 그 파격적인 간극에서 유머와 해방감을 동시에 경험한다. 여기에 삭발과 승복이라는 시각적 요소는 이러한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이 구조는 과거 속담 속 ‘중’을 다루던 방식과 닮아 있다. 과거에는 그것이 주로 ‘비하와 조롱’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즐거움과 트렌디함’이라는 외피를 입었을 뿐 작동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은 불교의 교리를 깊이 이해해서가 아니라, 불교라는 권위가 해체되는 지점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원효의 무애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투신’이었다면, 지금의 밈은 이미지의 충돌이 주는 재미를 소비하는 ‘연출’에 가깝다. 춤이 끝난 자리에 ‘염불’을 남기려 했던 원효와 달리, 지금의 비트가 멈춘 자리엔 무엇이 남을지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기표와 기의의 이별

언어학적으로 볼 때, 현재의 불교 흥행은 ‘기표(시니피앙)’와 ‘기의(시니피에)’의 분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표’가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형식(이미지·소리)이라면, ‘기의’는 그 안에 담긴 개념과 본질이다. 지금의 불교 흥행은 ‘기표’는 화려하게 부활했으나 ‘기의’는 실종된 상태에 가깝다. 불상, 목탁, “아제아제 바라아제” 같은 진언은 ‘힙한 기호’로 활발히 소비되지만, 그 안에 담긴 수행과 해탈, 깨달음이라는 본질적 의미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희화에서 열광으로, 문화 코드 된 ‘스님’
수행 침묵 깬 비트서 대중들 해방 맛봐
불교 언어, 거룩함 잃고 유희로 소비돼
빠르게 소비·휘발되는 ‘스낵 콘텐츠’ 위험
삶 관통할 ‘제2의 불교 언어’ 준비해야

가장 상징적인 예가 바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라는 단어다. 원래 이 말은 ‘야외에 단을 세워 부처님의 법을 듣는 엄숙하고 귀한 자리’를 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지금의 불교 유행이 이 단어처럼 본래의 거룩한 뜻은 사라지고 왁자지껄한 소란함만 남게 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이런 불교 언어의 가벼운 소비는 일상의 영역으로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수행자들이 목숨을 걸고 도달하려 했던 ‘해탈’은 금요일 저녁의 ‘정시 퇴근’과 동의어가 되었고,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상징하던 ‘번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고민의 수식어가 됐다. 언어가 가벼워진 자리에서 불교적 의미 또한 함께 가벼워지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부처 핸즈 업”과 같은 유희적 표현들은 불교의 언어를 일상으로 끌어내리는 데 공헌했으나, 동시에 그 언어가 지니던 무게를 희석시켰다. 종교적 언어가 유희로만 소비될 때, 불교는 삶을 직면하게 하는 사유 체계가 아니라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예쁜 장식품’이나 ‘새로운 오락거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불교는 어디로

불교가 대중과 악수하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제각각이다. 서구, 특히 북미 지역에서 불교는 철저히 실용적인 도구로 재해석되고 있다. ‘캄(Calm)’과 같은 명상 앱이 대표적인데, 여기엔 복잡한 교리도, 연기나 번뇌 같은 어려운 용어도 없다. 그저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이라는 과학의 언어로 무장한 채, 현대인의 지친 정신을 수리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최적화됐다.

이웃 나라 일본의 변화는 한층 더 과감하고 생활 밀착적이다. 도쿄의 ‘보즈 바’처럼 승려가 칵테일을 만들며 방문자의 고민을 들어주는 식이다. 자칫 파격적인 퍼포먼스로만 비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상담’에 있다. 이는 종교적 권위를 내려놓는 대신 승려를 시민의 곁에 배치함으로써, 사찰을 지역 사회의 정서적 거점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다.

서구가 ‘효능’을, 일본이 ‘위로’를 취했다면, 지금 한국불교의 키워드는 단연 ‘재미’와 ‘힙함’이다. 오랫동안 산중 엄숙주의를 고수해온 반작용일까. “극락도 락이다”라는 외침은 수행의 결과라기보다 EDM 비트 위에서 터져 나오는 유희적 함성에 가깝다. 이 파격은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는 성공했으나, 동시에 가장 빠르게 소비되고 휘발되는 ‘스낵 콘텐츠’가 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축제, 그다음을 준비하며

지금의 불교 대중화는 분명 유의미한 성취다. 사찰과 불교박람회 관계자들이 보여준 파격적인 시도는 불교라는 거대한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그들의 노고 덕분에 젊은 세대는 불교를 ‘쿨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되면 빠르게 소멸하는 밈의 속성상, 우리는 이 흥행에만 안주하지 말고 ‘제2의 불교 언어’를 준비해야 한다. 가벼운 웃음으로 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트렌디한 감각으로 문턱을 낮춘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힙한 옷’을 입고 어떤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이다. 대중이 스님의 파격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삶의 실체를 파악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행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목탁 소리는 오늘도 울린다. 그 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는 ‘힙함’ 이후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진짜 깨달음은 EDM 비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트가 멈춘 뒤 마주하는 자기 자신 속에 있기 때문이다. 축제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공부를 시작할 시간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금강의 지혜로 번뇌와 재앙을 사르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⑨ 논산 쌍계사 대웅전 팔금강벽화


논산 쌍계사 대웅전 팔금강벽화1(서측면 벽화).


논산 쌍계사 대웅전 팔금강벽화2(북측면 벽화).

팔금강은 팔대보살 화현한 호법신중
벽화 방제 통해 팔금강 존명 밝혀
팔금강 배치순서 〈석문의범〉과 달라
팔금강 표대 불꽃 형상은 지혜 상징

금강역사는 '금강저를 손에 쥔 자'

불교 교의체계에는 수많은 외호 세력이 등장한다. 인왕상, 사천왕, 팔금강역사, 팔부신중, 화엄신중 등이 그들이다.

사천왕은 수미산 불교세계관에 따른 구성으로 천왕문 건축과 함께 구현하고, 팔부신중은 탑신이나 불화 속에 인비인(人非人)의 성중으로, 화엄신중은 화엄경 설법 공간의 성중으로서 대부분 불화로 조성하여 봉안한다.

팔금강은 문경 김용사 괘불이나 순천 송광사 영산전의 영산회상도에서처럼 괘불, 후불불화 속에 간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야외의식용 깃발인 번(幡)이나 법당의 벽화로 봉안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팔금강은 문수, 보현, 관세음, 허공장, 미륵, 지장보살 등 팔대보살이 화현하여 나타난 호법신이다. 의례에서 설법 공간을 수호하고 중생의 재앙 일체를 제거해주는 외호신장으로 봉청한다.

'금강역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바즈라파니(Vajrapani)'다. '바즈라'는 번개의 상징인 '금강저'이고, '파니'는 '손'의 의미다. '금강역사'는 곧 '금강저를 손에 쥔 자'의 뜻을 가진다. '금강저'는 마음속 번뇌의 싹을 완전히 없애는 심검이다. 본질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다. 그래서 금강저를 손에 쥔 팔금강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설법하는 공간에 봉청한다. 〈금강경〉을 설하는 야외의식일 경우에는 팔금강을 번으로 제작해 설법 공간을 장엄했다. '불화+사보살도+팔금강도'가 결합한 하나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했다. 팔금강도가 외호하고 그 안에 사보살이 자리하고 의례 공간 중앙에 불화를 모심으로써 하나의 법계 공간으로 성역화한 것이다.

즉, 〈금강경〉이 설해지는 법계 공간으로 경영한 것이다. 이 같은 장엄 형식은 〈오종범음집〉의 '보청의식'에 따른 것으로 양산 통도사, 문경 대승사, 서산 개심사, 예산 향천사 등의 번 불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왜 '팔금강'인가? 이때의 '8'은 방위 개념이 강하다.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인 사간(사유)의 팔방 개념으로서 전방위적 강력한 외호 결계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팔금강은 외부에 포진된 호법수호의 외적 물리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강역사 이름에 함축된 '금강저'에 주목해야 한다. '금강저'가 곧 〈금강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강역사는 〈금강경〉 자체가 지닌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봐야 한다. 경을 설하고 독송함으로써 호법신이 집결하고 강력한 결계의 외호력이 형성되는 까닭이다. 금강역사는 경전 속 지혜로 일체 번뇌를 소멸시키는 내적 힘을 의인화한 존재로 보는 것이 더욱 본질적이다. 금강역사는 조형적으로 보면 우락부락한 인상에 근육질의 괴력을 지닌 수문장 같다. 그 조형의 모태도 헬레니즘 문화의 헤라클레스에 두는 시각도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방에 전파되고 인도불교와 그리스 문화가 만나 꽃 피운 간다라미술의 한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미술에서는 통도사 극락보전 좌·우측면 벽에 조성한 두 금강역사 벽화에서 그런 양식의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

2명, 8명, 14명의 금강역사

한국산사 금강역사 조형은 2명, 8명, 14명 등 집합적 군집 양상을 띤다. 현존하는 금강역사 벽화 속 인물 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명 금강역사-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고창 선운사 영산전, 양산 통도사 용화전/ 2명 금강역사-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완주 화암사 우화루/ 3명 금강역사-대구 용연사 극락전,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4명 금강역사-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구미 도리사 극락전, 김천 청암사 대웅전/ 5명 금강역사-제천 신륵사 극락전/ 8명 금강역사-논산 쌍계사 대웅전 내벽, 하동 쌍계사 대웅전 외벽, 대구 용연사 극락전 내벽, 부산 범어사 관음전 외벽/14명 금강역사-김제 금산사 미륵전.

팔금강역사 존명	색상과 배치방위	역할	무기 갖춤
1. 청제재금강	청색-동방	재앙 소멸	칼
2. 황수구금강	황색-중앙	구하는 소원 성취	칼
3. 벽독금강	흑색-북방	질병과 독 없앰	칼
4. 백정수금강	백색-서방	번뇌와 고(苦) 소멸	칼
5. 적성(화)금강	적색-남방	빛으로 부처님 뵙게 함	칼
6. 정제재금강		삼재팔난 제거	칼
7. 자현(신)금강		발보리심을 내게 함	칼
8. 대신력금강		중생 지혜력 증대	바위산

이 중 유의미한 팔금강 인물 수는 2명, 8명, 14명이다. 2명의 금강역사는 팔금강역사의 집약으로서 '인왕(仁王)'으로도 부른다. 진리 설법의 시작과 끝을 담았다. 시작의 '아' 금강과 끝의 '훔' 금강으로서 설법의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마장 퇴치와 결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험상궂은 분노의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름 속 '어질 인(仁)'자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의 본질은 자비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4명의 금강역사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 외벽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구성이다. 14명의 금강역사 구성을 뒷받침할 만한 교의적 근거는 없다. 다만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는 있다. 두 분의 인왕과 사천왕, 팔금강의 결집으로 추정된다. 2+4+8=14의 수리구조다.

하동 쌍계사, 논산 쌍계사에 팔금강

팔금강에서 '8'은 전방위적 모든 위상 개념이 담겨 있다. 어떤 분들일까? 팔금강벽화의 형식적 완전성은 하동 쌍계사 대웅전 외벽에서 발견된다. 야외의식에서 펼치는 법계 공간의 결계형식과 닮았다. 상주 설법하시는 법당의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외벽을 사보살도, 사자 탄 문수동자, 코끼리 탄 보현동자도, 팔금강역사도를 좌우대칭 구도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01년에 조성한 원본은 떼어내 따로 보관 중이다. 현존하는 벽화는 2006년 해체 수리하면서 원본을 모사한 것이다. 하지만 원본조차 채색 원리와 인물 묘사 등에서 미술적 완성도에 아쉬움을 남긴다. 그때 논산 쌍계사 대웅전 내부의 팔금강벽화는 한국산사의 팔금강벽화를 대표할 만하다. 팔금강역사 8명의 온전한 구성과 함께 장엄예술의 완성도, 1842년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벽화의 고전성, 인물 배치의 교의적 형식 등에서 주목을 끈다.

또 사자 탄 문수동자, 코끼리 탄 보현동자벽화와 함께 조성해 금강 장엄도량의 형식성을 추구하려 한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방제를 통해 모든 금강역사 존명을 밝힌 사실은 특별한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화면의 크기는 벽화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로 137㎝, 가로 86㎝의 규모다. 벽화는 대웅전 서측면에 3+2=5분, 북측면의 향좌측에 3분을 조성했다.

팔금강역사 배치 순서는 북측면의 오른쪽 금강역사부터 시작한다. 벽화의 흙벽에 흰 글씨로 '봉청 청제재금강'이라는 세로 방제를 적어 뒀다. '봉청(奉請)'이라는 단어는 오직 청제재금강의 방제에서만 나타난다. '봉청'은 '삼가 받들어 청합니다'의 의미다. 법회나 의례 등에서 호법신중을 받들어 청하여 성역에 대한 결계와 외호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시작해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했다. 방제에서 밝힌 팔금강의 존명·역할·배치 방위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팔금강의 역할은 불교의례집인 〈석문의범〉의 해석에 따랐다.

〈작법귀감〉, 〈석문의범〉 등의 해설 내용과 비교할 때 순서 배치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팔금강의 배치는 통상 1.청제재금강-2.벽독금강-3.황수구금강 순으로 이어진다. 논산 쌍계사 벽화에선 2번, 3번 금강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혼선의 양상을 보인다.

팔금강벽화에 사용한 색채는 녹색 계열의 하엽, 청색 계열의 삼청, 적색 계열의 석간주가 중심을 이룬다. 마지막 순서에 그린 대신력금강은 근래에 개채하여 색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팔금강의 인상은 하나같이 험상궂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과묵하다. 얼굴은 잔뜩 찡그려 노인처럼 온통 주름투성이다. 팔금강의 본성인 분노형의 자비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금강 저마다 다른 곳을 노려보듯 지켜보고 있는데 동그랗게 그린 눈과 눈동자의 표현이 익살스럽다. 몸 주위엔 천의의 표대 자락이 나부낀다. 머리 주위를 한 바퀴 휘감은 표대 자락은 불꽃 화염문처럼 이글거리게 표현해 특별한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화염문은 모든 재앙과 장애를 소멸시키는 금강역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금강의 머리 부분에는 빗방울 같은 보주 입자들로 가득하다. 빗방울과 불꽃은 중생의 온갖 번뇌와 재앙을 사루는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번뇌의 싹을 단숨에 자르는 금강저와 다름없다. 사실 부처님의 광배도 물과 불, 금강저의 띠로 표현한다. 그 조형의 본질은 무명을 밝히는 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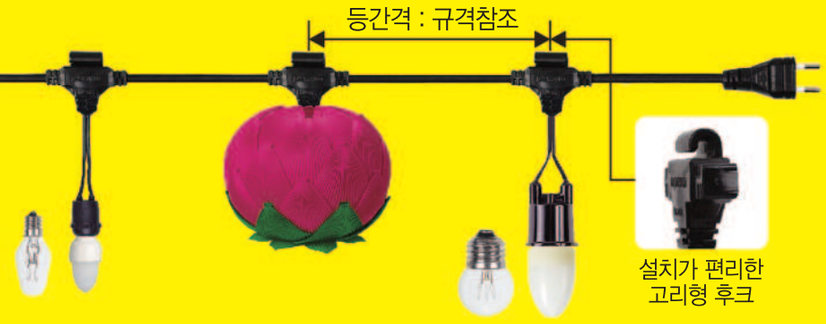
빗방울과 불꽃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공과 무아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깨트릴 수 없는 불멸의 금강반야다. 중생의 모든 번뇌와 업장, 재앙을 사루는 팔금강은 금강반야의 현현일 따름이다.



노재학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불교에도 동화가 있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① 프롤로그 : 왜 불교 동화인가?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백설 공주'와 '여우와 두루미', '돼지들의 소풍', '빨간 구두' 등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문학의 근본 물음을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한 책이다. 일종의 동화를 통한 인문학적 의미 찾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돼 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내용을 보충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고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책을 쓸 당시 새롭게 펼쳐본 동화는 그야말로 인문학의 보고였다. 어릴 때는 가볍게 읽고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와 사랑, 배려, 오만, 질투, 금지된 욕망 등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었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토끼의 오만이 경기를 패배로 이끌었으며, '흥부와 놀부'에서는 동생을 향한 형의 질투가 자신의 삶을 망가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빨간 구두'에서는 인간의 금지된 욕망을 읽을 수 있었고, '여우와 두루미'에서는 배려가 없는 사랑은 언제든 폭력이나 조롱이 될 수 있다는 인문학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동화에는 성실과 책임, 정직, 효 등과 같은 인성 관련 내용도 많이 담겨있었다. 어느 선생님은 인성을 주제로 한 동화를 오늘에 맞게 해석하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 인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동화를 선정해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해 보기도 했다.

실제 책이 출간된 이후 여러 학교에서 이를 교재로 인성 교육을 진행했다. 그저 초등학교 때 읽은 단순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동화에 이처럼 다양한 철학적 사유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지 않은 학생이 놀라워했다. 어떤 학생은 동화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 책을 교재로 담당 선생님이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저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책을 출간할 당시 불교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교에도 다양한 형태의 동화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 생각만 있었을 뿐, 출간한 지도 오래돼 한동안 잊고 지냈다. 그런데 지난해 출판사 대표가 후속작을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동화와 관련해서는 글밑천도 떨어진 것 같아 고민해 보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잊고 있었던 '불교 동화'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다. 이런 주제라면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개정판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를 편집한 분이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소임을 맡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는 이런 인연을 통해 연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화가 있다. 주로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흔히 자타카(Jātaka)라고 하는데, 대개 전생담(前生談)이나 본생담(本生談)으로 번역된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기 이전의 삶이 동화 형식을 통해 전승된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추석이 다가오면 회자

동화, 인문학적 성찰·인성 관련 내용 담겨
부처님 전생으로 만나는 불교 동화 많아
자타카, 불격 전환 위한 정진 과정 수록돼
석가보살 삶과 수행의 의미 성찰 뜻깊어
불교 동화 속 삶의 본질과 철학 전하려 해

하는 달 속의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이야기 역시 전생담에 나온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토끼로 살면서 수행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동화인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무구광(無垢光) 보살로 살았을 때 과거불인 연등부처님께 꽃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장차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이야기 역시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수기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불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인 셈이다.

그렇다면 불교 동화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전생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속내가 있을 것이다.

인격에서 불격(佛格)으로

이러한 자타카를 만든 이들을 흔히 찬불승(讚佛乘)이라 한다.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승불교가 일어날 당시 그들은 불탑에 참배하러 오는 신도에게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다.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문화 해설사 역할을 한 셈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장면을 탑에 새기고 순례자에게 해설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시작으로 출가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팔상성도(八相成道)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찬불승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자타카를 만든 것일까? 물론 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지만, 그 근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찬탄과 추앙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다.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인격이 6년간의 수행만으로 가능할까?'

알려진 것처럼, 싯다르타는 29세에 출가하여 6년 동안 수행하고 35세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45년 동안 고통에 빠진 중생을 건지기 위한 교화행을 펼치다가 80세에 열반에 이른다. 찬불승들은 이런 위대한 삶이 6년의 고행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들은 부처님께서 수많은 윤회, 전생을 거듭하면서 임금이나 사문, 장자, 토끼 등 여러 모습으로 수행한 끝에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이처럼 고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수억 겁 동안 지극한 수행을 통해 중생이 부처로, 인격이 불격(佛格)으로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즉 자타카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생담에서 부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원숭이나 코끼리, 토끼와 같은 동물로, 때로는 임금이나 신하, 장자(長者)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중생에서 부처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정진한 수행자라는 사실이다. 이를 가리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菩薩)이라 했다.

보살은 처음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해당하는 용어였다. 그런데 대승불교 운동이 널리 퍼지면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下化衆生]'는 이념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모든 사람을 가리켰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서원(誓願)을 세우고 출가하면 비구, 비구니 보살로 불렸고 재가자라면 우바새, 우바이 보살이라 이름했다. 대승불교를 보살불교라 정의할 만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타카를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자타카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생 이야기는 수행을 통해 인격에서 불격으로 질적 전환을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불교 동화가 의미를 갖는 지점이기도 하다. 불교는 중생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었고, 부처님[佛]의 가르침[敎]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이다. 자타카를 통해 석가보살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찰하는 일은 매우 뜻깊다 할 것이다.

이 글은 불교 동화를 통해 서두에서 언급한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문학의 근본 물음에 대해 오늘의 시선에서 성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 불교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선택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를 전하려 한다. 불교 동화와 함께 떠나는 인문학, 혹은 철학 여행이라 생각하면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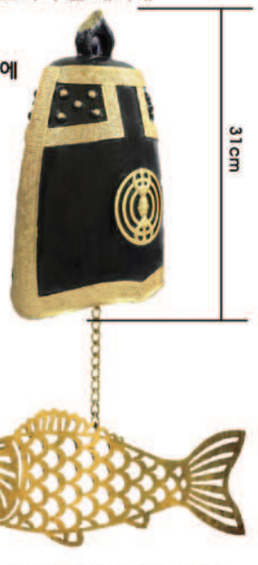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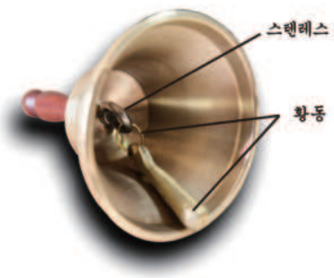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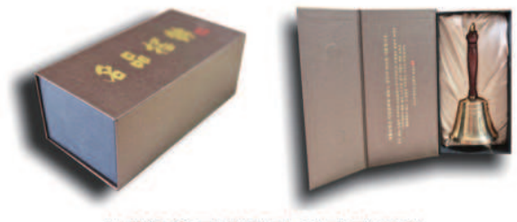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생활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에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말라

말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질문 스님의 가르침 받들어 항상 말과 행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감정이 격해질 때는 거침없이 거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의 중요함을 알기에 습을 녹이고자 하지만 자꾸만 제 의식에 속게 됩니다. 한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언젠가 흑인이 어린앨 낳아서 까만 사람이 까만 걸 끌고 가면서 까만 초콜릿을 먹이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허허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쩌면 저렇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을 낳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참, 철두철미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할까.'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다른 거는 또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것을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요다음 생에 다시 진화돼서 바뀌나올 때 바로 모습을 어떤 걸로 가져 나와야 될까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삶은 다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자식이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놈은 죽어서 꼭 소가 될 거야. 미련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고 항상 그랬는데 아, 딴은 죽어서 소가 됐답니다. 소가 돼서 자기네 그 소 매 놓는 데, 외양간이라 그러죠? 외양간에 새끼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새끼가 그 어미한테는 안 가고 자꾸자꾸 그 주인 부부한테 자꾸 비비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아이, 매물을 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콩이나 이런 거 그냥 쒀서 다시 줘야만이 이렇게 먹고 아, 이러니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시니까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스님한테 여쭤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는, 당신이 죽으면 미련스럽게 소가 될 거라고 그러던 아드님입니다." 아,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는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저, 그 콩하고 짚하고 썰어서 삶는 거 있죠? 여물! 여물을 쒀서 먹이는 데도 새끼와 어미, 그것이 다 같이 먹도록 그 스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거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 봐야 알 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소 모습을 가졌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있나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하더라도 소 허물을 썼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애탄지탄하고 사람들한테 발버둥이 치고 하소를 하고 음메음메 하고 애를 써도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연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이란 본래 체가 없는 거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퍼지듯이, 또 하나로 뭉쳐지듯이, 벌어지고 뭉쳐지고 이렇게 작용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화돼서 해 나온 과정을 증명하려면 모두 여러분의 몸속을 보십시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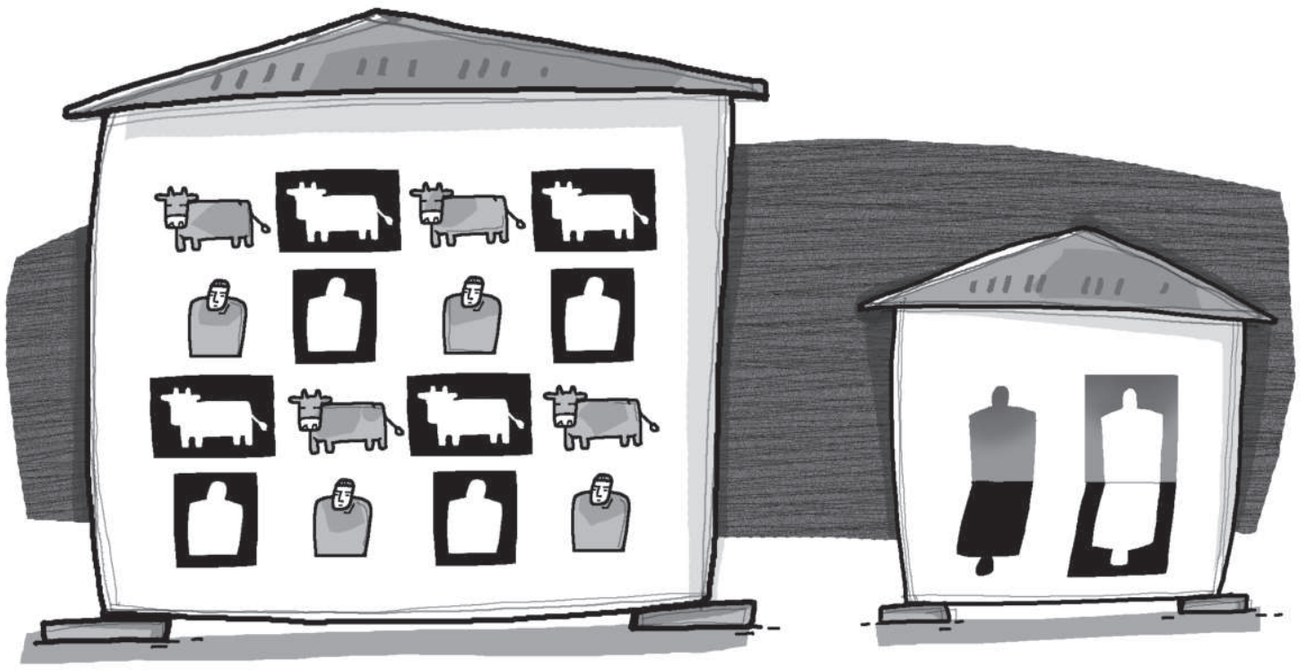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 '야, 네 몸인데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의식들이. 그래서 나를 '아, 몰랐더니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선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에 두뇌로 올라가서, 즉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누진입니다. 누진이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거든요. 제집이 없어지거든요. 제집 망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제집이 망가지는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그 의식들이 들고 나면서 그냥 뭐,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끌어들여서 파워를 일으키는데,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나쁜 것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이 주인공의 그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우고 공부를 할 걸 다 한다면 그 모든 게 그냥 삽시간에 바깥으로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고, 안으로는 안대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 이런다면 그냥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동, 말, 이 모두가 뜻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이러더라도 말로 하고 몸뚱일 잡아 가지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야 몸뚱이도 오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욕을 하고 "아이구, 요놈의 새끼. 너는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밖엔 못 차." 이러고 갖은 욕을 하면서 불안을 격화시키고 온통 그냥 집안 식구들을 다 그냥 북북북북 긁어서 화를 내고 인제 이런다면 그것이 어떻게 입력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뭐, 자식이든지 누구를 막론해 놓고 부모든지 자꾸 달아나갑니다, 추우니까. 보금자리가 너무 쌀쌀하고 추우니깐 말입니다. 따뜻한 데로 찾아가느라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모든 거를 다 거기 맡겨 놓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면 같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 19면에서 계속

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말을 할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반야심경

질문 우리가 매 법회 때마다 반야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 물질로서 나는 건 영원한 게 아니라 모두 부서지고 변하고 죽고 살고, 고정됨이 없이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다음에 마음을 내는 것, 그다음에 육체가 움죽거리는 것,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내면세계와 모든 바깥의 외면세계가 전부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부터, 내 주인공부터 깊이 모든 것을, 껍데기 자기가 아닌 영원한 자기를 지키고 그거를 믿어야 하고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몸뚱이는 자기 마음이 끌고 다니는 거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자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생각이 없다면 말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핵이라는 자체가 바로 주인이다 하면, 생각을 내면 벌써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핵과 공이 같이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듯 인생이 그렇게 고정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끌고 다니는 알맹이가 생각도 하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장본인 자체가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없다면 이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믿고 자기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무의 세계, 유의 세계 포함해서 같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일까요

질문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내 것을 더 얻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는 인식으로 아웅다웅 힘겹게 살아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인 것일까요?

답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 간 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훔쳐 와야겠다. 그래서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 안의 의식들은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 줍니다. 그 마음이 서면 악도 그만큼 있고 또는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마는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바로 나였던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역사를 봐도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들 진화돼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을 바꿔 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럼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을 보면 너무나 더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으로 뭉쳐 있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累)가 아니 되는 거는 하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한생각에 밝아지는 도리가 있으니 이 마음 도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마음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분별하는 의식들이 올라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답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생활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에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지배하는 지배인은 부처니까 그저 속지 말라.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그냥 거기서 모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생각을 내는 그 마음이 당당하게 '나는 속지 않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할 때 그 앞서 입력된, 과거에 입력된 그 인과응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냥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현재에 입력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서 팔자운명도 붙지 않는 자리요, 병고도 붙지 않는 자리요, 또 우환도 붙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니까 그게 주인이자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안 되는 것이 거기서 나올 때는 '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거기 맡기고 또 잘돼서 나오는 건 '아이구, 감사하구나!'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맡겨 놓고, 또 정히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는 '아! 안 되는 것도 법이려니 되게 굴리는 것도 거기서 굴려서 나올 거야.' 하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홀연히 내가 밝아지거든요. 앞서의 카세트의 노래란 게 없어지고 운명 팔자 이런 게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고 지금 새로 넣는 것이 입력이 돼 가지고 아주 슬기롭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아래 중생들 제도하니 좋지, 위 부처님 자리 한자리 하니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럭하다 보면 여러분이 밝아지고 자기를 자기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둘이 아닌 도리를 또 배우느라고 자꾸자꾸 길잡이한테 물어 가면서 공부해야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한번 왔다가 "스님, 이러이러하옵니다." 그러면 "어, 당신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 해, 그거." 이럽니다, 내가. 항상 뭐, 정성 들여라 이런 게 없습니다. "어, 그거 당신 주인공밖엔 해결 못 해."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 와서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재판이 걸려 있어도 그렇게 "그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 해!" 이러거든요. 말을 여러 마디 해서 뭘 합니까? "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 해." 이럽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와서 정말이지 감사하다고 그럴 때 웃음이, 씽긋이 웃음이 나면서 너무나 좋은 거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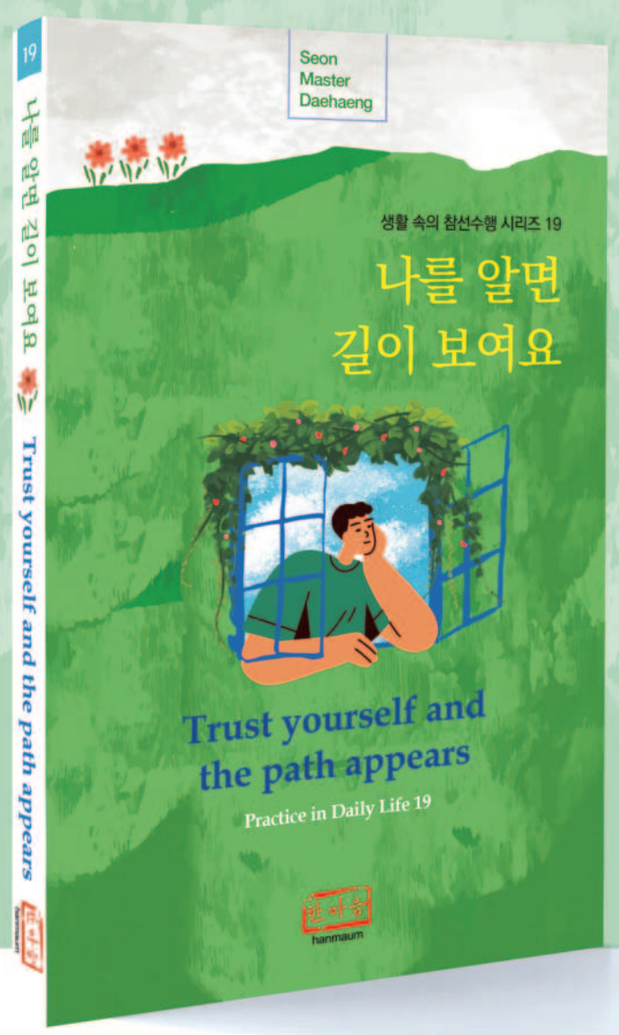
그러니까 서로 다, 상대가 좋으면 나도 좋고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이것이 한 마음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이 몸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 맡기십시오.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한다.' 하고요. 자기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거니까요.

>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겨놓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면
> 같이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⑨ 각자의 빛깔로 울리는 줄

‘틀린 소리’라는 확신을 관하며

〈觀〉

아이들을 똑같은 소리로 만들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 정이 들어 지금도 떠나지 못하는 그 교실에서 저는 꽤 오랫동안 아이들의 다름을 지워왔습니다. 줄을 뜯기도 전에 냄새부터 맡는 아이도, 기타처럼 와다다 긁어버리다 슬며시 손을 내밀어 멈춰 세운 아이도, 결국엔 같은 손 모양, 같은 각도, 같은 세기로 모았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국악 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완성된 소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단을 쳐주며 합주를 듣는데, 무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소리도 무미건조했습니다. 소리는 맞았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틀린 음 하나 없이 완성된 그 소리가 왜 그토록 공허한지,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친 것인가, 아니면 지운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안족(雁足)이 먼저 알고 있었다

가야금은 구조 자체가 획일화를 거부하는 악기입니다. 열두 줄을 받치는 안족은 못 하나 박지 않고 오로지 줄의 장력과 나무의 마찰로만 서 있습니다.

음을 정확히 맞추려면 안족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팔의 길이가 다르고 누르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연주자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음을 내기 위해서도 각자의 몸에 맞게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악기 스스로가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없다고.

대회를 앞두고 아이마다 안족을 따로 세팅해주던 것처럼,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이가 낯선 방식으로 줄을 뜯을 때 예전이라면 바로 고쳤을 것입니다. 그 대신 먼저 물었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네 귀엔 어떻게 들려?”

아이는 잠시 멈추고 자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소리를 향해 달려가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빠른 곡을 배우다 자꾸 멈칫거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표현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악보를 내려두고 산조의 첫 장단인 진양조를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느리고 깊은 그 가락 앞에서 아이는 눈을 반쯤 감고 듣더니, 조용히 손을 얹어 따라 했습니다. 그날 그 연주는 그 아이에게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획일화 거부 열두 줄, 저마다의 소리 내
정확한 음 교정 대신 자기 소리 듣게 해
채움 대신 걷어내 드러나는 고유한 울림

가르치는 시간이 곧 수행이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불성(佛性)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수행을 통해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자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지식(善知識)의 역할은 그 불성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교육 또한 없는 것을 채워 넣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빛깔이 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두려움을 걷어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일이 곧 저 자신의 수행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빨리 고쳐야 한다는 조급함, 완성된 소리에 대한 집착. 아이 앞에 앉을 때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선(禪)에서는 이것을 ‘관(觀)’이라 합니다. 밖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 정작 교육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이며, 저도 아이도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색이 머물 자리

몇 해가 지나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부시게 빠른 아이도 있었고, 답답할 만큼 느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다리기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왜 이걸 못 하나, 속으로 조급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끝나고 나면 늘 기억에 남는 건 잘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리를 낸 아이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색이 태어나고 있겠지요.

그 색이 머물 자리를 준비하는 일, 저마다의 결이 지워지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는 일. 그것이 제가 그 작은 학교를 아직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치려 하는 그 사람의 소리, 틀렸다고 확신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직도 그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가야금 명상곡 ‘Into Nothing’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㉝ 탈모 관리

머리카락, 식물 키우듯 정성 다해야

“이야, 너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네? 세월이 다가오면 좀 피해 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정수리가 유독 휑해 보인다.

“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왜 그럴까?”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뭐더라? 프로스펙스?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어봤는데 효과도 시원찮고 부작용만 있더라.”

“프로페시아겠지. 근데 너 전원주택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정원도 있겠네. 농약만 치면 정원 관리가 잘 되니?”

“아니지. 당연히 물도 주고 흙도 갈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쳐야지.”

“잘 아네. 네 머리카락도 정원 가꾸듯이 좀 정성스럽게 가꿔보면 안 되겠니?”

“그게 뭔 소리야?”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자라는 소중한 식물이다. 농사나 정원을 직접 가꿔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식물을 제대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다. 비옥한 땅을 골라 식물을 심고, 물이 잘 스며들도록 물길을 잘 터줘야 하며, 때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도 쳐줘야 한다. 정원 청소도 자주 하고 흙이 굳어있거나 돌이 박혀있으면 대청소도 한번씩 해줘야 한다. 대충 한두 가지만 해보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농사야 한 번 망쳐도 내년이라는 기회가 있지만, 모발 농사에 재도전이란 없다. 한 번 실패로 끝이다. 그렇다면 머리 위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먹는 병원 약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전문의약품은 정원 관리에 비유하자면 벌레만 골라잡는 농약이다. 이 벌레의 이름은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인데 이는 식물 뿌리를 조여 줄기를 가늘게 만들고 새싹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고약한 벌레다. 식물은 그대로 놔두고 이 벌레만 쏙쏙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약이다.

다시 말해 모낭을 좁게 만들어서 굵은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드는 나쁜 물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탈모의 진행을 늦춘다. 이 약은 이미 난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주는 약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약해져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다.

뿌리는 약국 약 미녹시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탈모약인 미녹시딜은 스프레이나 스포이트 형태로 사용한다. 정원 관리에 비유하자면 물길이 막힌 땅에 물길을 다시 터주는 작업이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미녹시딜은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어 물길을 다시 터주는 밭갈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문의약품, 모발 가늘어짐 원인 차단
뿌리는 약, 두피 혈류·영양 공급 개선
영양제-모발 굵기 개선, 샴푸-두피 관리

원래 혈압약으로 사용되던 성분인 미녹시딜은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준다. 혈압약으로 개발됐다가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보고 탈모약으로 사용하게 된 재미있는 배경이 있는 약물이다. 미녹시딜이 두피 쪽의 혈관을 넓혀주므로 모근과 모낭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면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먹는 약국 영양제 비오틴, 맥주 효모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 같은 영양 성분들로 구성된 탈모 영양제를 광고로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제품의 구성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출시돼 있는데 이러한 영양제는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비료에 해당한다.

아무리 농약을 치고, 물을 줘도 흙이 메말라 있으면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이런 영양제들은 모발을 구성하는 재료를 공급하고, 모발이 자라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맥주 효모에는 비타민B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두피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머리카락의 재료인 단백질을 보충해준다.

모발이 가늘어졌을 때 굵기를 개선하고 싶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탈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치료와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병충해가 심하고 물길이 막힌 땅에 비료만 뿌린다고 식물이 잘 자라진 않을 테니 말이다.

탈모방지 샴푸, 두피 스케일러 등 홈케어 제품

시중에는 다양한 성분의 탈모방지용 샴푸와 두피 스케일러 같은 제품들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매일 꾸준하게 정원을 관리해 주는 정원 청소라고 보면 된다.

탈모방지용 샴푸는 콘셉트에 따라 다양한 성분들이 조합되므로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목표는 명확하다.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피지와 각질을 관리하여 모낭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두피 스케일러는 피지와 각질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 단단하게 굳은 것을 벗겨내는 제품이다. 두피가 깨끗해야 미녹시딜이나 머리카락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다.

탈모방지용 샴푸는 매일 하는 정원 청소, 낙엽 쓸기나 쓰레기 줍기로 생각할 수 있고, 두피 스케일링은 한 번씩 크게 하는 대청소 같은 느낌이다.

이러한 홈케어 제품들은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 하는 역할보다는 빠질 이유를 줄여준다.

탈모에 무척이나 민감한 우리들이다. 그러니 한 가지 편한 방법만으로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비단 성적만이 아니다. 모발도 그렇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일일시호일

원인불명 중증 질환 캄보디아 니엔 씨

“치료를 이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패혈성 쇼크·호흡부전 겹친 위중 상태

가족 곁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 치료 후에도 호흡 곤란 지속

병원비 2000만 원…치료 중단 위기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⑨

중학교를 세워야 했던 이유



2012년에 지어진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의 초기 건물.

초등학교를 세운 지 3년이 지난 2011년의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교사 6명에 학생 500여 명이 재학하는 제법 큰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눈에 띄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에 불과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식량도, 마실 물도, 집도 부족한 마을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걸친 채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는 한때 지나치게 낭만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고 마을에 우물이 생겨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면, 삶은 분명 나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 마주한 현실은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쓰라이 넷(지금은 성장해 씨엠립의 한 은행에서 근무)은 수줍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이 태국에서 일하시는 동안 저는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두 명의 밥을 챙기고 물을 길어와 빨래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티잉 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졸업 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잠시 눈을 감은 교장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거두고 쓸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부분은 태국으로 넘어가 막노동을 하거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둔기에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초등학교를 세울 때만 해도, 문맹 퇴치가 모든 문제의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자, 넘기 어려운 높은 산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배였고 길을 잃지 않게 해 줄 나침반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세운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다음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중학교를 세워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레꾼의 통장에는 중학교를 세울 만한 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려시대 선사 지눌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고 또 깊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황무지 같은 현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듯, 이곳에서 다시 길을 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심결(修心訣)〉에 나오는 간결한 한 구절이지만, 우리 가슴에는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선사의 한 말씀에 힘을 얻어, 마침내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⑤ 가르치기보다 스며들게 하는 전법

흔들림을 수행으로, 성장의 그늘이 되어

동국대학교 이과대학 불교동아리 '자연科 함께' 지도법사를 맡은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가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 공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로만 접하던 그 공간에 지금 제가 직접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깊이 와닿습니다. 신문 기사 속 풍경을 몸소 실감하니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마음이 앞설 따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언가를 잘 배우는 자리라기보다, 각자의 삶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공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창한 질문보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의 말들 속에서 더 깊은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잘하는 수행'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볼 수 있는 경험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질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동아리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일 또한 법사의 몫이라 여깁니다.

배우기보다 삶 멈춰 바라보는 공간으로
학생에 자연스레 다가가 중심 잡아주며
생활 속 수행 잇도록 그들과 함께할 터

'가르치기보다 함께 머무르고, 이끌기보다 방향을 비추며,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는 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연구자로서의 시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전법특임교수로서 대학생 전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불교교육연구소에서 불교교육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언제나 이론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법은 설명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경험 속에서 스며들 때 비로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면 조용히 법당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수업이 끝난 뒤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법문보다 "오늘은 좀 힘들었습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수행의 시작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청년 전법이란 거창한 설명보다 곁에서 함께 머물러주는 일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완벽한 답이 아니라,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일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믿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힘. 생활 속 수행이란, 어쩌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자연科 함께'가 학생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경험이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질 수 있도록, 법사로서 저는 그들 곁에 함께 있고자 합니다.



청라 스님
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⑰ 참회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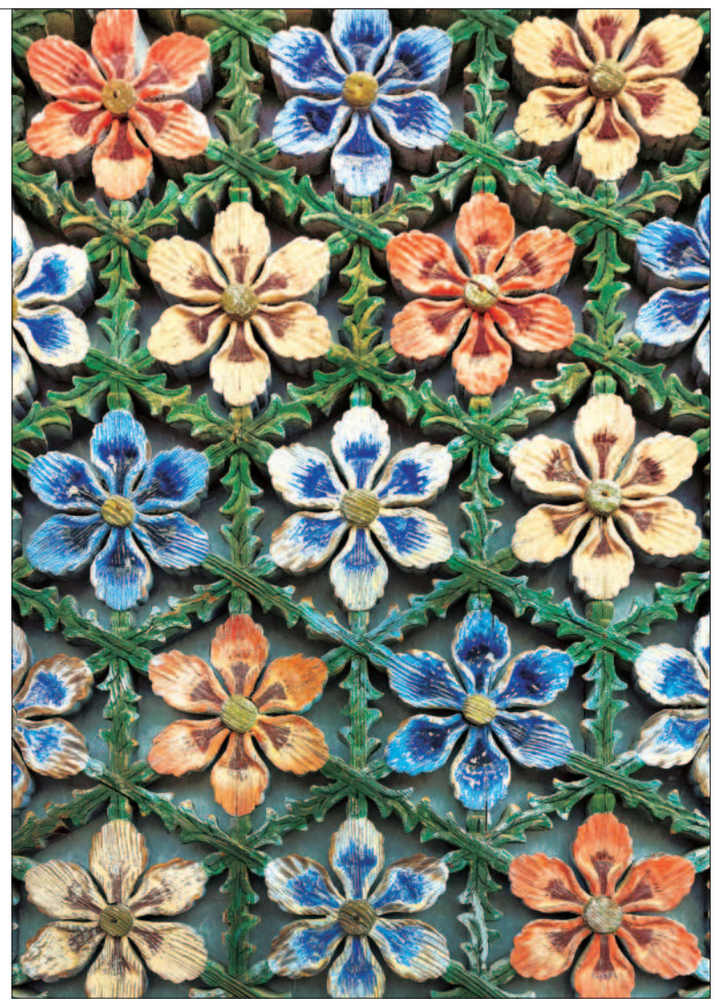
5월의 산색은 수줍게 웃는 듯한 연둣빛에서 짙은 초록으로 변해간다. 아까시나무가 구름처럼 꽃을 피울 때까지는, 등교 시간이 지난 학교 앞처럼 꽃들도 잠시 침묵한다. 바로 이 무렵에 고운 보랏빛으로 세상의 한 귀퉁이를 밝히는 꽃이 있다. 사람들의 입길에 '잎'으로만 오르는 오동나무꽃이다. 크게 자란 오동나무에 핀 꽃을 보면 봉황이 왜 이 나무에만 깃든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벌과 나비보다는 봉황과 짝해야 어울릴 듯한 모습이다.

동화사(桐華寺)를 우리말로 풀어 읽으면 '오동나무꽃절'이 된다. 그 이름의 유래가 〈팔공산동화사사적기〉에 전한다. 사적기에 따르면 본디 동화사는 493년(소지왕 15) 극달(極達) 스님이 창건한 유가사였는데, 832년(흥덕왕 7) 심지(心地) 스님이 중창을 마치고 나서 동화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심지 스님이 중창을 마치자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이 만발했는데, 때는 한겨울이었다. 이로 하여 절 이름을 동화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삼국유사〉 '심지계조(心地繼祖)'에 심지 스님이 한국불교 미륵신앙의 개조인 진표 스님으로부터 몸이 부서질 정도의 참회로 법을 잇게 된 사연이 전한다. 한겨울에 핀 오동나무꽃은 세간의 척도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참회의 상징이다.

동화사 대웅전 가운데 꽃살문은 정교한 조각과 색채의 화사함으로 이름 높다. 심지 스님이 피운 한겨울 오동나무꽃의 변신이다. 깊은 참회는 이토록 곱게 세상을 장엄한다.

손영자 작가



동화사 대웅전.



수행의 일상화와 수행자의 구도

〈求道〉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월의 산사(山寺)는 오색 연등으로 화려하게 물들고 있다. 2600여 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울려 퍼진 아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단순히 한 성인의 탄생을 알리는 고고성(呱呱聲)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의 극치이자, 출가와 수행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자의 삶을 상징하는 선언이다. 또한 수행을 통해 누구나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최근 젊은 층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불교의 선(禪) 수행이 사찰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확산하는 현상은 대단히 놀랍다. 과거 불교사가 복잡한 논리를 우선하는 학파 중심의 시대나, 기복과 기도를 강조하던 신앙의 시대를 거쳐왔다면, 이제는 대중이 직접 '수행'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 있다.

그동안 참선은 수행 전문가와 승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지금은 알아차림, 명상, 위파사나, 사마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식 변화다.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고통과 불안한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보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명상(禪冥想) 보급은 종교를 떠나 모든 이를 수행의 길로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불교 열풍에 대중이 수행 주체되는 시대
선명상·수행결사로 '수행 대중화' 안착돼
선불장 지킬 수행자 양성·지원 고민해야

고 있다. 그리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는 비구니 스님을 비롯한 여성들이 수행의 주인공이다. 부처님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깨달음을 성취했던 여성 수행자들의 정신을 되살리는 복원 작업이자, 진지한 수행 실천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동체의 수행 결사 진행은 수행의 대중화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수행 방식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행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과 출가 사문들에게 수행은 '생사해탈'과 '깨달음'이라는 절대적 목적을 향한 치열하고도 엄중한 구도의 길이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을 위한 수행이 널리 확장되는 동시에, 붓다의 길을 걷고자 신심을 내는 진지한 수행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길을 열어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수행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며,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갈증은 더욱 뜨거워지기 마련이다. 이 뜨거운 발심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큰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단과 승가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수의 신심 있는 구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정진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선불장(選佛場)을 지켜나가는 일은 불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보루가 될 것이다.

뜨거운 수행의 열풍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름을 찬탄한다. 그 가운데 마침내 중생을 제도하여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승한 수행자, 고귀한 스승의 탄생도 함께 기대한다. 기쁨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모두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영원하길 서원한다.

선거와 구분심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후보자들은 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각설이 장단에 춤을 추고 목청을 돋우며 장터를 누비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의 마당판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담론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들고 다니는 '여행 가방'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장판에서 광대 노릇을 해주니 민주주의의 깃발은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인다.

민주주의는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 적이 없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이념이다. 그러기에 항상 논란의 파고에서 항해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담론은 대의제의 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는 바로 선거의 위기로 연결된다. 선거는 선택 행위다. 선택 행위는 바로 '구분심'에서 나온다. 이를 어쩌랴. 불교에서 구분심이라는 용어는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구분심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필자는 구분심에서의 해방은 '지혜로운 구분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구분심은 공(空) 사상의 세속제(世俗諦)이다. 세속제는

지혜로운 구분심, 민주 시민의식의 기초
중도적 삶, 갈등 속 민주주의 나침반 돼
선거 앞두고 불교도 역할·책무 되새기길

중생이 사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방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 계층, 세대, 이념 등 다양한 요소로 갈등하고 분열돼 있다. 유권자의 표를 갈구하는 정치인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각종 디지털 매체 등은 미움의 구분심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민주주의 성패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바로 '보통 시민'의 민주 의식이다. 민주 시민의식의 기초는 바로 지혜로운 구분심이다. 지혜로운 구분심은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둔 자비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비 윤리는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하지 않고, 또한 타인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 독단적 판단을 삼가며 신중하게 연민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와 같은 자비 윤리는 갈등과 분열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적 인성과 생활양식은 바로 연기론적 사유에서 나온 중도적 삶과 연결된다. 이것은 갈등의 바다를 항해하는 민주주의 나침판이다.

민주주의와 불교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붓다는 공화주의적 품격을 지닌 분이다. 민주적인 정치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붓다의 메시지는 〈유행경〉에 뚜렷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칠불쇠법(七不衰法)'이다. 선종의 전통에서 전해 내려온 심우도(尋牛圖)를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도의 책무가 다시 다가온다. 심우도의 10단계 마지막 장면은 시정거리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입전수수(入廛垂手)다. 이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리라. 지혜로운 구분심은 팔정도의 정견(正見)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도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새겨 본다. 선거의 야단법석에서 괘불(掛佛)이 장엄하게 펼쳐지길 서원해 본다.

社 說

'마음 평안의 달' 한국불교 새 도약 계기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이 펼치고 있는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국제선명상대회는 국민적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연등회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청년 세대와 무종교인들의 폭넓은 참여다. 실제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방문객의 80% 이상이 MZ세대였고, 무종교인 비율도 40%를 기록했다. 국제선명상대회 역시 젊은 세대가 대거 동참하며 'AI시대의 마음 치유'라는 화두에 깊이 공감했다.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폭주한 신청으로 예약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는 일시적 호기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변화다. 치열한 경쟁과 관계 단절, 불안과 피로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청년들이 불교 안에서 쉼과 위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방증이다.

MZ세대·무종교인 참여 확산…정신문화 새 역할
연등회로 평안과 화합 메시지 '국민 치유'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열반과 해탈, 성불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평안"이라고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단적 대립과 혐오, 경제적 불안, 전쟁 위협과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집단적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불교가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위안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다. 끝없는 욕망과 분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적 가치다. '마음 평안의 달'이 시대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올해 연등회가 '평안과 화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욱 의미 깊다. 북한 문헌 속 등을 재현하고 북향민들이 행렬에 참여하는 장면은, 정치와 이념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종교와 전통문화는 여전히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평화의 염원이 남과 북, 세대와 계층, 종교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잇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로봇 스님과 AI에 대한 불교의 태도다. 진우 스님이 강조했듯 AI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전법과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불교는 결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면서도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성찰해 온 종교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올해 연등회는 그러한 한국불교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힙한 콘텐츠와 문화적 관심이 실제 신행과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포교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에 대한 호감이 일시적 소비로 끝나지 않고 삶의 가치로 자리 잡도록 전국 사찰과 교구본사, 신행단체들이 청년들과 일상적으로 호흡하며 수행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를 지닌 민족문화의 근간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동체를 치유할 정신적 자산을 품고 있다. '마음 평안의 달'이 불교의 새로운 도약이자 국민 통합과 치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5월 1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5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5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재질 : 인조가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재질 : 인조가죽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